

# 2003년도 구비문학 연구동향

최 원 오 (덕성여대)

1. 머리말
2. 학회 동향—한국구비문학회를 중심으로
3. 구비문학 각 갈래별 연구 동향에 대한 비평적 점검
  - 3.1. 설화
  - 3.2. 민요(근대가요 포함)
  - 3.3. 무가
  - 3.4. 판소리
  - 3.5. 민속극(연희 포함)
  - 3.6. 속담·수수께끼
  - 3.7. 구비서사시
4. 맺음말—전반적 경향과 학문적 전망을 검하여

## 1. 머리말

이 글은 2003년도(2003.1—2004.5)에 제출된 구비문학 연구물을 검토하여, 그 학문적 동향과 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해가 갈수록 연구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것들을 자세히 읽고 검토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따라서 한 문제에 대해 다수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이 제출되었거나, 학문적 논쟁점을 제기한 결과물, 주된 학문적 경향을 보인 논문, 박사학위논문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어떤 분야의 검토이건 간에, 연구동향의 검토란 특수성 때문에 2003년도라는 공시적 시점에 생산된 결과물만을 놓고 논의될 수는 없다고 본다. 학문적 논쟁이란 기존의 연구물과의 진지한 대화에서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 점에서 이 글은 필요에 따라 기존의 연구물들을 거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많은 연구물들을 검토하고 동향을 정리하다 보면 연구 결과를 오독하는 수가 있다고 본다. 박종성이 2002년도 연구경향을 검토한 글<sup>40)</sup> 중 필자의 글<sup>41)</sup>에 대해 논한 것을 예로 들면, “<세경본풀이>와 <목길주와 두완주>는 모두 영웅의 면모를 표면적이든 잠재적이든 간에 지닌 인물들의 서사시여서 서사적 측면에서 둘 사이의 뚜렷한 변별성 곧 <세경본풀이>에서 <목길주와 두완주>로의 변천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199면)고 비판했는데, 필자는 “영웅서사시의 구조를 차용하여 만들어진 애정서사시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제주도의 <세경본풀이>와 羌族의 <목길주와 두완주>, 倭族의 <召樹屯>을 들 수 있다.”(11면)고 했으며, 결코 이 두 작품의 선후 관계를 논하지 않았다. 또한 “<세경본풀이>는 무속의례에서 불려지는 서사시이지만 강족과 아이누의 서사시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199면)고 비판했는데, 비록 자세하게 기술한 것은 아니지만 “강족의 <목길주와 두완주>는 端公이라는 강족의 무당이 日爾米箴(舊曆 5월 5일)과 轉山會(구력 10월 1일) 등 큰 명절 때에 굿을 하면서 부른 서사시라는 점”(9면), “카무이 유카르는 투수tusu라는 巫女가 주체가 되어 전승해온 구비서사시로 自然神이 서사시의 주인공이다. 마트 유카르는 祭典과 관련하여 전승되어 온 카무이 유카르의 전통을 따랐지만, 마트 유카르 자체가 제전과 관련된 제전서사시는 아니다.”(8면)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세경본풀이>가 본토에서 각편들이 전승되지도 않는 제주만의 무속서사시인데 원형을 재구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된다. 논자의 견해라면, <할락궁이>에서 <안락국태자전>을 제외하고 원형을 재구할 수 있는가. <구농야방본풀이>는 고려 태조 왕건의 가문신화가 핵심 서사인데 이를 제외하고 원형을 재구할 수 있는가.”(200면)고 비판했는데, <세경본풀이>에 설화나 소설 등에서 차용

40) 박종성, 「구비문학 연구의 몇 가지 양상에 대한 검토와 전망.(2002-2003), 『국문학연구』 제10호, 국문학회, 2003.12.

41) 최원우,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남녀애정의 문제」, 『고신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12.

된 요소들이 많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인정한 바이다. <할락궁이>나 <구농야방본풀이>는 그런 논란조차 있을 수 없는 것을 여기에만 빗대어 원형을 재구할 수 있겠느냐고 필자에게 묻는다면 필자로서는 할 말이 없다. 설혹 원형 재구라는 말이 비평자에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차용된 요소들이 분명한 것들을 제외하고, 주변 민족의 문화영웅서사시의 서사구조를 참작해 볼 때 원래는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전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sup>42)</sup>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오독이나 오해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대상 논문의 요지를 자세히 정리하고, 주장한 요지의 전체 맥락과 관련하여 필자의 생각을 첨언하기로 한다.

검토대상은 전국 단위의 학술지를 위주로 하되, 구비문학연구, 한국민속학, 비교민속학, 한국민요학, 판소리연구 등의 구비문학 관련 학술지를 우선하고, 나머지 학회의 것은 부차적 검토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석사학위논문은 취사선택을 해서 검토하고, 박사학위논문(국문학)은 될 수 있으면 모두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그 학문적 성과를 따지고자 한다. 박사학위논문은 이 분야 소장학자들의 학문적 흐름이나 역량을 보여줄 것이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 2. 학회 동향—한국구비문학회를 중심으로

한국구비문학회는 2002—2003년도에 걸쳐 ‘현대사회와 구비문학’이라는 대주제 아래 네 개의 소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학문적 논쟁을 펼쳤다. 구비문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산되어 구비 전승되고 있는 문학 형태를 연구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양식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구비문학의 형태도 변모하기 마련이다. 그에 따라 구비문학의 개념 확대의 필요성, 새로운 연구 자료의 확장과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시각의 전환,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개발 등이 구비문학 연구의 논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한국구비문학회는 바로 이런 점들을 네 번에 걸쳐

42) 이러한 추정은 필자의 저서 *동아시아비교서사학*(월인, 2001)에서 했다.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네 번에 걸쳐 논쟁을 벌인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이 중 (2), (3), (4)는 이 글에서 검토할 대상이기에 좀더 자세히 살핀다.

현대사회와 구비문학(1) — 현단계 구비문학 연구의 좌표

현대사회와 구비문학(2) — 현대의 문화적 환경과 구비문학

현대사회와 구비문학(3) — 구비문학의 현재적 전승 양상: 양주지역 구비문학 공동조사 연구

현대사회와 구비문학(4) — 구비문학의 미래

(1)에서는 현 단계 구비문학 연구 및 연구자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고자 했다.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반성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반성적 관점에서 각 분야마다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중국, 일본, 인도, 미국, 헝가리, 미국 등의 사례도 함께 살폈다. (2)에서는 현대의 문화적 환경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또는 구비문학의 범위에 포괄해서 살필 수 있는 사례들을 점검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현대사회와 구비문학(2) — 현대의 문화적 환경과 구비문학

천혜숙, 현대의 이야기문화와 TV,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최혜실, 디지털 문화 환경과 서사의 새로운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장유정, 한국 트로트의 정체성에 대한 일고찰—1945년 이전 노래의 시적 자아의 정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박애경, 랩의 수용 과정을 통해 본 대중가요의 이식성과 자생성,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김종균, 현대 드라마의 구비문학적 위상,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안상경, 충청도 ‘사혼굿’의 제의 환경과 극적 효과,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최명환, 현대의 지역축제와 전설—강원도 영월지역의 ‘단종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전통 구비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다룬 주제들, 예컨대 토크쇼, 스토리텔링, 트로트나 랩과 같은 대중가요, 드라마, 굿과 현대의 문화적 환경, 전설의 지역 축제화 현상 등은 다뤄지기 힘든 것들이다. 특히 토크쇼, 스토리텔링, 대중가요, 드라마 등을 과연 구비문학의 범주로 포괄하여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생겨난 구술문화에 해당한다. 문학도 문화의 한 하위항목인 점을 고려하면 현대의 구비문학 연구는 구술문화까지를 포괄하는 연구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구비문학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변모되어 가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될 수 있겠다.

(3)에서는 설화, 민요, 무가, 민속극 등의 전통 구비문학이 전통사회에서 현재 어떻게 존재하며 전승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폈다.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사회도 상당히 많이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통 구비문학의 존재와 전승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문학적 분석보다는 존재와 전승양상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현대사회와 구비문학(3) — 구비문학의 현재적 전승 양상: 양주지역 구비문학 공동조사 연구

강진옥, 양주지역 설화의 전승양상을 통해본 이야기문화의 현황과 향방,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12.

신동훈, 이야기문화의 세대별 양상과 경험적 담화—경기도 양주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조현설, 신화적 구비서사의 현상과 전망—경기도 양주 지역 이야기문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김헌선, 경기도 양주군 민요의 과거와 현재—노동요와 의식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강정원, 근대화에 따른 유양리 민속문화의 변화—종교민속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최원오, 경기도 양주지역 무속과 무가의 현재적 전승 양상—양주읍·백석읍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전경옥, 양주별산대놀이의 지속과 변화,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허용호, 양주소놀이굿 전승에서 나타나는 변이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구비문학의 여러 갈래는 전통사회의 산물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과거의 것’으로 다뤄왔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 전통 사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의미 있게 재구성했다. 그러나 구비문학은 현재적 삶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미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비문학이 전승되는 현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개인 연구였을 때는 관심 있는 분야만 조사하여 다루게 되지만, 이 기획은 구비문학의 각 갈래를 전공하는 여러 연구자들이 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하여 구비문학의 전반적 전승양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4)에서는 구비문학의 미래를 전망했다. (3)을 통해 전통문화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구비문학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기에, 구비문학은 미래에도 여전히 생동할 것을 믿는다. 다만 (1), (2)를 통해 제시했듯 구비문학의 개념, 범위, 연구방법은 현대사회의 변모양상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다시 거론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현대사회와 구비문학(4)—구비문학의 미래(한국구비문학회 제41차 연구발표회, 2003.8.19, 이화여대)<sup>43)</sup>

- 조동일, 구비문학의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박종성, 소위 '현대신화'에 대하여  
 천혜숙, 구비설화의 갈래와 범주, 그 미래적 전망  
 김진순, 문화산업과 민요콘텐츠—문화원형사업 <한국의 소리은행> 개발  
 을 중심으로—  
 조미라·윤의섭, 구비문학의 애니메이션 활용에 관한 방안과 전망  
 안이영노·김광옥, 입으로 새기는 현대적 축제—구비문학과 지역축제의 상  
 생을 위하여—

구비문학의 미래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고전문학이자 현대문학', '전통 시대의 구술문화 연구이자 현대사회의 구술문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즉 전통 구비문학이라 지칭하는 것은 고전문학의 학문적 범주에서 연구하고, 현대사회의 구비문학·구술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현대문학·현대 구술문화의 학문적 범주에서 연구하면 될 것이다. 이제 구비문학 연구는 학문적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이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전통 구비문학·구술문화 연구, (2) 전통 구비문학·구술문화의 현대적 활용—축제, 문화콘텐츠로의 활용방안 모색, (3) 현대 구비문학·구술문화 연구—구비문학의 개념, 범위, 방법론의 확정.

### 3. 구비문학 각 갈래별 연구 동향에 대한 비평적 점검

#### 3.1. 설화

설화 연구는 전반적으로 비교문학에 대한 관심과 신화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국문학계에서는 5—6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는 타 학문분야에서도 구비문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

43) 『구비문학연구』 제18집(2004.6.30 발간)에 수록되었다.

과물이 다수 나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구비문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표지이다. 그 중에서도 신화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어 있다.<sup>44)</sup> 이러한 현상은 국문학계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신화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논문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sup>45)</sup> 그 점에서 민담의 신화적 성격을 고찰하려는 경향도 신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일단일 것이다.<sup>46)</sup>

먼저 설화에 대한 비교문학적 관심을 보자. 비교문학은 문학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방법론이다. 따라서 비교를 하지 않는 것보다 비교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에서 쉽게 벗어나게 또는 쉽게 망각하게 하는 것이 전파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때이다. 비교문학은 원래 심층적 검토를 가로막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경우 더욱 진지한 자세로 비교연구에 임해야 할 당위성이 요구된다. ‘梁祝說話’가 그러한 예이다.

최근 ‘양축설화’에 대한 연구물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출되었는데<sup>47)</sup>, 연구자들 간의 소통 없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물이 나온 것은 때

- 44) 오유미, 「중국 뱀 신화의 상징성 연구」, 연세대 석사(중문학), 2001.6.; 유강하, 「중국 幼兒犧牲神話 연구」, 연세대 석사(중문학), 2001. 12.; 강병관, 「『산해경(山海經)』 신화연구(神話研究)—창세신화(創世神話)와 자연신화(自然神話)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중문학), 2003.8.; 송기영, 「『산해경』 새 신화의 전승양상 연구」, 연세대 석사(중문학), 2003.7.; 김은정, 「한·일 창세신화 비교」, 건국대 석사(일문학), 2003.; 이용범, 「한국 무속의 神觀에 대한 연구—서울 지역 재수굿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종교학), 2001. 2.; 김후련, 「일본 고대인의 他界觀 연구(日文)」, 한국외대 박사(일문학), 2003.; 이유경, 「신화의 형성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 홍익대 박사(미학), 2004.; 임근동, 「산스크리트와 힌두문학의 신화대비 연구」, 한국외대 박사(비교문학), 2003.; 송정화, 「중국신화에 나타난 여신 연구」, 고려대 박사(중문학), 2002.; 김일검, 「카작 민족의 영웅상—설화와 서사시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종교학), 2003.
- 45) 2002년에도 다음과 같은 박사논문이 제출되었다. 서해숙, 「한국의 성씨조신화 연구」, 전남대, 2002.; 윤희신, 「한국신화의 입사의례적 탄생담 연구」, 연세대, 2002.; 장기웅, 「단군전승의 비교신화학적 연구」, 조선대, 2002.; 강유리, 「죽음을 다룬 무속신화의 시간과 공간구조 연구」, 서강대, 2002.;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최진봉,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저승의 양상」, 숭실대, 2002.
- 46) 서해숙, 「최치원 설화의 신화적 성격」,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5.; 노영근, 「『방귀쟁이 떠느리』 민담의 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신연우,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6.; 이지영, 「『오누힘내기 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12.

우 이례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양축설화는 그동안 서사무가(문굿, 세경본풀이), 고소설(양산백전) 등과의 관련 하에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전과관계가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그 전과 또는 수용의 측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전에 제출된 연구보다 더 나아가 간 측면이 있다면, 양축설화가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었던 조건이나 동인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박진태는 양축설화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다섯 작품과 양축설화의 공통점·차이점을 해명한 다음, 한국의 다섯 작품들 상호간의 친연성에 의거해 영향관계의 계보를 추정하였다. 이어 양축설화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죽음’의 의미를 정치사회·사상사적, 무속신앙적, 남녀결연관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양축설화가 한국문학에 접맥된 동인을 구명하였다. 그리하여 양산백전은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모두 합치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함경도무가(문굿, 양산백추양대)와 제주도설화(차장비설화)는 무속신앙적, 남녀관계의 측면에서 합치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무가(세경본풀이)는 남녀결연관계의 측면에서 합치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趙姍姍은 唐末에서 宋初, 즉 8세기에서 10세기 무렵에 한국에 유입된 후, 12세기에서 14세기에 구비전승의 형태로 뿌리를 내렸으며, 중국에서는 전설로 구전되는 데 비해 한국의 양축설화는 민담으로 구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중 양축설화의 공통 모티프로 혼사장애, 변장, 散墳, 投塚, 合葬, 化蝶 등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공통 모티프가 찾아지는 원인은 한중 양국의 문화적 기반, 즉 연애 관념의 동질성, 유교 관념의 동질성, 내세 관념의 동질성, 토맹 관념의 동질성에 있다고 보았다. 중국의 양축설화가 한국에서도 수용되어 전승되고 있는 동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경희는 중국의 문헌자료와 구전자료를 토대로 양축설화의 양상을 정

47) 이소라, 「양축고사 및 그 한중 민요의 가사와 선율관계」, 『비교민속학』 16, 1999; 박진태, 「중국 양축설화(梁祝說話)의 수용과 변용」, 『어문학』 75, 한국어문학회, 2002.; 趙姍姍, 「한·중 ‘양축설화’ 비교 연구」, 충북대 석사, 2003.8.; 김세경, 「越劇 <梁山伯與祝英臺> 연구—비극성을 중심으로—」, 상명여대 석사(중문학), 2004.2.; 김경희, 「중국 <梁·祝>故事의 한국적 수용 양상」, 서울대 석사, 2004.2.

리하고, 이것이 한국의 설화·서사민요·서사무가·소설 등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살폈다. 그리고 양축설화 전승의 문화적 기반으로 애정과 혼숙, 혼령의 신격화, 전통문학관습 등을 지적하고 있다.

세 연구자들은 묘하게도 양축설화가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든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 어휘만 달랐지 실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예컨대 무속신앙적 측면(박진태), 내세 관념의 동질성(조산산), 혼령의 신격화(김경희)가 서로 유사하고, 정치사회·사상사적 측면(박진태), 유교 관념의 동질성(조산산), 혼숙(김경희)이 서로 유사하며, 남녀결연관계의 측면(박진태), 연애 관념의 동질성(조산산), 애정(김경희)이 서로 유사하다. 다른 나라의 문학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해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과도한 주장을 펼 수가 있다. 제주도의 서사무가 <세경본풀이>가 그러한 예이다. 양축설화와 <세경본풀이>의 관계에 대해 단순한 흥미적 삽화의 수용, 애정서사시로의 확장의 측면에서 수용된 것이라는 점이 기존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경희는 중국 양축설화가 가지고 있는 祭儀的 속성이 <세경본풀이>에서 발휘된 것으로 보았다. 중국에서는 宋代 이후에 양산백과 축영대를 위한 사당이 생겼으니, 이때부터 중국의 양축설화는 제의적 속성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위 이들(특히 양산백)이 전란을 평정하는 데 있어 공을 세워 그 공적이 제의를 통해 기려지는데<sup>48)</sup>, 이는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하늘나라에서 변란을 물리치고 그 공으로 오곡을 받아와 제주도에 농경이 시작되게 한 결과 무속제외의 숭배를 받게 되는 것과 서사적 패턴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양축설화의 한국적 수용 양상을 살필 때 제주도의 <세경본풀이>는 매우 특수한 자료에 속한다. 다른 자료들에 비해 그 수용 양상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료이건 한국의 자료이건 양산백과 축영대라는 고유명사를 유지한다. 그러나 <세경본풀이>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세경본풀이>는

48) 중국의 양축설화는 초기에는 축영대의 義婦에 초점이 맞춰져 전승되다가, 점차 양산백에 계도 초점이 맞춰져 그를 忠臣으로 선정하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功績型的 양축설화가 나타난 것은 양산백이라는 남자 주인공의 존재를 부각시킨 결과일 것이다.

양축설화에서의 同學 모티프만을 차용하여, 원래의 내용을 확장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원래의 내용으로 보면 <세경본풀이>는 문화영웅서사시이다. 그리고 문화영웅서사시에는 지상과 異界(천상인 것이 보편적)의 남녀가 結緣하는 요소가 삽입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때 남녀는 신분상의 위계뿐만 아니라 문화적 위계를 보인다. 이것을 극복하고 문화적 업적을 이루는 것이 곧 문화영웅서사시의 핵심이다. 그런데 <세경본풀이>는 여기에 흥미적 내용의 요소를 다수 덧붙이고 있다. 즉 문학적 흥미를 위해 작품의 내용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설화들과 함께 양축설화의 동학모티프도 수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세경본풀이>의 문학적 위상을 제대로 자리 매김 해주는 길이다.

중국의 양축설화에서 축영대의 혼령을 나비와 연결시킨 최초의 언급은 南宋 薛季宣(1134—1173)이 祝陵을 여행하면서 읊은 <游祝陵善權洞詩>에 서이다. 우리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모티프가 함경도의 문굿에서만 보인다. 따라서 南宋 이전에 양축설화가 우리나라에 수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 자료에 근거하면 南宋 이후라고 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축영대의 혼령을 나비와 연결시키는 모티프가 문굿에서만 보이니, 다른 자료들은 왜 이것을 결여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전파 문제는 이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수 안고 있으며, 그것은 대부분 추론적 결론을 내는 쪽으로 진행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일단 전파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자국화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것의 독자적 미학 특질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그 미학적 특질까지 전파나 수용의 관점과 연결지어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양축설화는 어디까지나 양산백과 축영대라는 인물 중심의 이야기—이들을 의부와 충신으로 설정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작품들에서는 결코 인물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작품들은 양축설화를 수용하고 있는 양상이 각각 다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양상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수용 이후의 독자적 위상을 심층적으로 해명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비교문학이 전파나 수용의 측면만을 해명하는 도구는 아니다. 각 민족 또는 자국 내에서의 문학적 존재나 위상, 그 독자적 의미를 비교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이기 때문이다.<sup>49)</sup> 그 점에서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것이 創世神話이다. 창세신화는 이전부터 신화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던 대상인데, 올해도 역시 그러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에는 국내의 자료만 점검하던 데서 나아가 점차 그 연구의 外延이 동북아시아의 자료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송승렬<sup>50)</sup>은 한국의 창세신화와 동북아시아 제민족의 창세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창세신격이 주변 민족의 신격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했다. 이를 위해 제이슨Heda Jason이 제시한 ‘구비문학에 있어서 설화의 구조분석을 위한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별·모티프별 내용 고찰을 통해볼 때, 동북아시아 제민족의 창세신화는 주된 신격에 의한 창조가 많은 데 비해 한국의 자료에서는 자성적인 창조가 주를 이루며, 주된 신격을 또한 동북아시아 제민족의 창세신화에서는 창조 수행의 기여자로서 분명한 위치와 창조의 적극성을 보인 반면, 한국의 자료에서는 창조의 의미가 감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리고 창조의 기여자(Donor)와 창조의 주인공(Hero), 창조행위(Action)라는 3요소로 이루어진 D—H—A구조(동북아시아 제민족의 창세신화)가 기여자라는 요소가 갖춰지지 않은 H—A구조(한국의 창세신화)에 비해 반드시 강한 신성성과 창조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창세신화의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서, H—A구조의 창세신화는 구체적인 창조의 기여자라는 요소의 부재를 통해 D—H—A구조에서는 살필 수 없었던 태초의 원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송승렬이 천지창조신화를 대상으로 검토한 데 비해 조현설<sup>51)</sup>은 홍수신

49) 전성희, 「한국 도깨비담과 러시아 바바—야가담의 비교 연구」(고려대 석사(비교문학협 통과정), 2003. 6). 한국의 도깨비담과 러시아의 바바야가담을 도깨비와 바바야가가 보여주는 兩價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Filippova Anna, 한·러 동물담 비교 연구」(배재대 석사, 2002. 12). 한국의 동물담은 교훈적인 것이 많은 데 비해 러시아 동물담은 흥미위주의 오락성이 내재된 이야기가 많다. 또 한국 동물담에는 호랑이와 토끼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러시아 동물담에는 여우와 늑대가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에서 이들 동물이 친근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선택되었으며, 늑대의 역할은 호랑이의 역할과, 여우의 역할은 토끼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했다.

50) 송승렬, 「창세신화의 신격 연구—동북아 제민족 창세신화와의 비교를 통한 고찰—」, 영남대 석사, 2003. 6.

51) 조현설, 「동아시아 홍수신화 비교 연구—신·자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중심으로

화를 대상으로 신화비교를 시도하였다. 중국 소수민족들에게서 전승되는 다수의 홍수신화를 대상으로 하여, 파괴와 조절의 상징인 홍수신화는 홍수의 원인을 통해 자연과 신,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신화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自然原因型, 人間原因型, 神原因型으로 홍수신화의 유형을 분류한 뒤, 신원인형 홍수신화는 자연원인형 홍수신화의 신화적 변형일 뿐이라고 하면서 인간원인형 홍수신화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인간원인형 홍수신화는 인간과 신의 관계,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範例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을 지나치게 변형시키면 홍수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조절의 능동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말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종교적 목적이나 사회적 규율을 위해 재생산될 때 인간원인형 홍수신화는 또 다시 변형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男妹婚 홍수신화이며, 이 신화에는 남매혼의 신화적 능동성을 뒤집고 자연의 우연성을 사회적 필연성으로 확정하려는 강력한 도덕의 목소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송승렬과 조현설의 연구는 창세신화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것이지만, 그 연구의 초점은 상이하다. 송승렬의 연구는 우리의 것과 주변 민족의 것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구조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조현설의 연구는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같고 다름보다는 동아시아 홍수신화라는 큰 틀 안에서 홍수신화가 재생산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 다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송승렬의 경우 서로 다르게 정리된 구조가 갖는 각각의 의미를 밝혀내지 못하고 말았으며, 조현설의 경우에는 보편적 유형의 확정과 그 의미 파악을 점검하는 데서 그쳤기에, 그 과정에서 각 민족의 홍수신화가 갖는 세밀한 의미를 드러내지 못했을 뿐더러 그 의미 파악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나아간 점이 없지 않다.<sup>52)</sup> 두 연구 모두 어

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6.

52) 예컨대 신과 자연이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또한 홍수의 원인을 인간 외부에서 찾느냐, 인간 내부에서 찾느냐를 우연성과 필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연 그런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홍수의 원인이 인간 외부에 있으면 홍수가 인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인간이 홍수의 원인을 왜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미 탐구는, 결국 인간의 관점을 무시한 채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떻게 보면 큰 틀만을 생각한 데서 나온 한계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창세신화에 대한 관심은 국내 자료에만 한정해서 이뤄지기도 했는데, 여러 자료를 대상으로 비교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기에 기본적으로는 비교문학의 방법론을 그 기저에 깔고 있다. 김난주, 조현설, 최원오의 논의가 이러한 시각에서 이루어졌는데, 김난주의 논의는 분석심리학적 방법에, 조현설과 최원오의 논의는 다분히 문화론적·철학론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난주<sup>53)</sup>는 한국의 창조신화를 대상으로 하여, 각 신화에 나타난 다양한 상징들과 모티프가 세계 각지에 분포된 신화에 나타난 상징, 모티프와 맥을 같이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동일한 원형·모티프가 지역·민족을 불문하고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 인간 정신(무의식)의 공통된 구조의 표출로 본 分析心理學의 견해를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分析心理學의 방법에 의해 한국 무속신화의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정리해보자면, 각각의 창조신화는 카오스—창조라는 서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그것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창세신화에서의 미륵시대—석가시대—초경험적 세계의 서사적 전개과정은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전의식단계—의식단계—초경험적 세계로 구성되는 것과 부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카오스—창조는, 어둠으로부터 빛의 출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시각에 의해 처용설화가 가택신화(門神說話)에서 변모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이 설화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즉 <처용설화>의 구조는 특히 <성주풀이>의 구조와 같은데, 처용과 아내, 역신의 삼각관계는 <성주풀이>에서 한 여자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대립이라는 삼각관계와 같다는 것이다. 이로 보면 결국 <처용설화>는 무속의 가택신화가 寺刹說話로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주풀이>와 <처용설화>를 창조신화의 시각에서 본 것은 두 자료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성주풀이>와 <처용설화>가 과연 창조신화인가? 창조신화에서 창조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 되물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에서의 논리에 따르면 건국신화도 나라를 만들어내는 내용을 담고 있고, 카

53) 김난주, 「한국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단국대 박사, 2003.7.

오스의 상태(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창조(건국의 상태)로 진행되었으니 얼마든지 창조신화의 관점에서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석의 잣대를 지나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주도 당신본풀이 중 <토산웃당본풀이>에서 확인되는, 당신으로의 좌절과 이의 가시적 표현인 당의 형성은 어둠으로부터 빛의 출현임을 뜻하기에 당본풀이가 창조신화라고 한 것은 그러한 극단적 적용과 해석일 것이다.

조현설<sup>54)</sup>은 <김쌍돌이본 창세가>, <강춘옥본 생강>, <고대중본 천지도업>의 분석을 통해 ‘선악이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창세의 시공에서 이미 생성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 내에서 인간은 지극히 숙명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이것을 ‘첫 번째 창세와 악의 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남매혼, 목도령형 홍수신화를 통해 ‘두 번째 창조와 존속된 악’의 양상을 살피고 있다. 엘리아데의 말대로 홍수가 인간세계를 정화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악이 세계에 들어온 것이라면 그 악은 홍수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정화되지 않는다는 관점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홍수신화는 재창조를 말하는 신화이지만 선악의 문제에 관한 한,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홍수로 인해 재창조된 세계는 이미 낡은 세계라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 창세신화는, 악이 인간의 외부에 있다는 인식 안에서 발현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根源的 樂觀論—필자가 이해하기에는 宿命論—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화라는 것이다.

조현설이 우주창조신화와 홍수신화를 연결시켜 한국 창세신화에 나타난 숙명론적 세계관을 논의했다면, 최원오<sup>55)</sup>는 이들 자료의 관계를 神話哲學的 논쟁의 결과물로 파악하고자 했다. 신화를 포함한 서사문학이란 기본적으로 앞선 시대의 세계관과의 논쟁의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주창조신화가 인간세계를 포함한 우주세계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라면, 홍수신화는 인간세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다. 그리하여 홍수의 발생을 통해 우주창조신화의 포괄적 규정을 개입시키고, 지상의 유일한 남녀에 의해 주체적

54) 조현설, 「한국 창세신화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문제」, 『한국어문학연구』 제4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8.

55) 최원오, 「창세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사유의 재현과 변주—창세, 홍수, 문화의 신화적 연관성을 통해—」, 『국어교육』 111,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3.6.

‘인류 재창조’를 실현시킴으로써 우주창조신화의 세계관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주창조신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상세계의 선악의 공존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선악의 공존은 인간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이 아니라 적극적 인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문화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자연을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학습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즉 남매혼형 홍수신화에서는 수렵사회의 ‘血緣的 利他性 동물적 본능의 모방과 학습’을, 목도령형 홍수신화에서는 농경사회의 ‘互惠的 利他性 식물의 생존양태에 대한 모방과 학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주창조신화가 어떻게 홍수신화를 제어하고, 홍수신화는 어떻게 그것을 재현하고 변주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인간세계의 문화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우주창조신화와 홍수신화는 일종의 신화 철학적 논쟁 사이에 놓여 있는 신화들로 규정되고 있음을 본다.

한국의 홍수신화에 나타난 세계관을 숙명론적 세계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문화창조의 진취적인 과정으로 볼 것인가는 받아들이기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과로 이해된다. 앞서 조현설이 동아시아의 홍수신화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것의 의미를 천착하려 했던 연구물을 검토하였는데, 그 논문에서 조현설은 ‘홍수신화의 재생산과 그에 따른 의미의 변모’를 강조하였다. 특히 남매혼형 홍수신화를, ‘남매혼의 신화적 능동성을 뒤집고 자연의 우연성을 사회적 필연성으로 확정하려는 강력한 도덕의 목소리가 숨겨져 있는’ 신화로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강력한 도덕의 목소리’는 인간의 목소리이기에, 홍수신화는 결국 인간이 주체적 세계관을 확보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홍수신화를 세계에 대한 근원적 낙관론, 즉 필자가 이해하기에는 숙명론적 세계관이라는 관점으로 단일화해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목도령형 홍수신화에서는 분명히 선악을 대표하는 두 소년이 등장하고 있고, 가정을 이뤄 지상에 그 후손을 퍼뜨린 존재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논의의 균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외 자료가 되었건 국내 자료가 되었건 비교문학의 기본 관점은 공통점과 차이점의 추출 및 그것이 갖는 의미—국외 자료와 비교할 경우는 민족

문학적 특질 해명, 문학 존재론적 해명 등—의 해명에 있다. 그 점에서 서대석<sup>56)</sup>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속서사시와 설화를 대상으로 滿族과 한국의 자료가 보여주는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추출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민족 문학적 특질을 구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滿族의 무속서사시 <니산샤만>과 한국의 무속서사시 <초압말>, <바리공주> 등에 나온 저승세계의 모습은 상통되는 바, 이는 두 민족이 모두 불교의 영향을 받아 불교의 지옥이나 극락의 형상을 받아들여 저승세계를 형상화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또 민담 <개와 고양이의 구슬 찾기>에서 보이는 차이점은 寶珠의 획득과정, 강물에 빠뜨린 보주를 되찾는 과정에서인데, 즉 滿族에서는 龍子가 변신한 뱀을 살려준 대가로 용궁에 초대되어 작은 인형을 얻어다가 조상신과 함께 위성하여 삶에 필요한 재화를 얻으며, 되찾는 과정에서도 용자가 다시 찾아주고 있는 데 비해 한국 자료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잡아먹으려는 구렁이로부터 보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되찾는 과정에서는 고양이가 물고 온 물고기 배속에서 보주를 발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차이는 財物과 福祿을 가져다주는 보주가 業神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국 자료에는 이러한 업신에 대한 숭앙이 퇴조하고 인간의 삶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인간중심의 사고가 투영되어 있다면, 만족 자료에서는 보배 인형이 한국의 업신이나 骸骨神과 같은 성격은 지니면서 신성성과 崇仰感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비교문학적 관점, 특히 주변 민족의 자료와 비교한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연구를 더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제 국내의 자료를 대상으로, 신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보인 연구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는데, 백제신화에 대한 연구, 祭儀와 신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 논쟁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연구사를 점검하겠다.

백제신화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계나 국문학계에서 일찍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도 제출되었는데, 국문학계의 논의에서는 단연 서대석<sup>57)</sup>의 연구가 백제신화의 핵심을 잘 지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56) 서대석, 「한국과 滿族의 구비서사문학의 대비 연구」,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한국학공동연구총서』 1),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따라서 최근의 논의들도 서대석의 연구를 넘어서려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대석은 백제가 마한을 병합한 이후 마한의 부족들이 백제의 중심세력으로 나타나면서 신화도 마한인들이 전승했던 水父地母型으로 달라졌다고 하였는데, 최근의 연구자 중 한미옥<sup>58)</sup>은 그녀의 박사논문에서 바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신화의 전승이 항상 일원론적으로 진행되었을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하면서, 백제신화는 이원론적 체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제와 후백제의 신화를 백제 건국신화로 명명하고, 이를 대상으로 백제 건국신화가 갖는 신화체계를 이해하고, 그것이 한국 신화 체계 안에서 어떤 위상을 점하며 전승되어 왔는가를 살피고 있는바, 백제의 마한계 건국신화로 건원설화(서동설화 포함)를, 백제의 부여계 건국신화로 온조설화<sup>59)</sup>를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는 수부지모형의 신화적 전승체계를, 후자는 천부지모형의 신화적 전승체계를 갖는 바, 백제 건국신화는 바로 이러한 이중의 신화적 전승체계를 갖기에, 여타의 한국 신화와 같이 백제신화는 ‘부모의 신성혼에 의한 건국주의 탄생’과 ‘모계의 지모신적 속성’을 동일하게 갖는다고 했다.

백제신화로 부여계통의 신화와 마한계통의 신화가 이중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익히 서대석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연구의 성과로 제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위에서도 지적했듯 한미옥은 백제신화를 고찰함에 있어 일원론적 시각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마한계통의 신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른 시각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서대석은 백제후기에 마한의 부족들이 지배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마한신화가 지배계층의 신화로 등장하였다고 보았는바, 한미옥은 이를 단선적 시각으로 평가하면서, 백제신화는 단선적 체계가 아닌 복합

57) 서대석, 「백제신화 연구」, 『백제논총』 제1집, 백제문화개별연구원, 1985; 지병규, 「고대 건국신화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 박사, 1993. 한미옥은 지병규의 논의 역시 서대석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지병규는 부여계통명계 신화는 東明廟에서, 마한계신화는 仇台祭로 왕실에서 숭앙했다고 보았는데, 기준이 세운 마한이라는 나라를 한반도의 동북방면에 비정함으로써 출발한 가정이니, 그 출발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58) 한미옥, 「백제 건국신화의 계통과 전승연구」, 전남대 박사, 2003. 8.

59) 박사논문 이전에 나온 논문에서는 沸流說話를 백제건국신화로 비정하고 있다.

한미옥, 「백제건국신화로서의 비류설화」, 『우리말글』 27호, 우리말글학회, 2003.4.

적으로 존재하여 전승된 체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 있는 서동설화, 곧 무강왕설화는 마한의 건국신화이고 이것은 다시 후백제의 건국설화로 이어졌으며, 온조설화는 부여계 지배층의 것으로만 남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백제신화는 지배계층의 신화와 피지배계층의 신화로 나뉘어, 소위 이중 신화 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의 발미는 서동설화에 대한 문헌의 기록이 미심쩍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 때문에 서동설화에서 서동이 나중에 무왕이 되었다고 한 부분을 백제후기의 史實로 받아들여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기록자의 편견과 착오에 의한 기록으로 보고 전혀 史實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시각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기록을 어떤 쪽으로 이해하느냐는 순전히 연구자의 몫이다. 하지만 한미옥과 비슷한 시각을 가진 선행 논문<sup>60)</sup>이 있었기에, 이를 독창적 연구결과로 제시하기에는 아직 미흡해 보인다. 또한 서동설화는 곧 夜來者型說話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성과와 학문적 대화가 있었어야 된다고 본다.<sup>61)</sup> 아래자설화는 천부지모형 신화의 변이형이라는 주장<sup>62)</sup>, 즉, 부모의 신성혼에 의한 시조의 탄생담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천부지모형 신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의하면, 아래자설화는 북방지역의 東夷族이 남하하면서 가져온 신화로 파악된다. 또한 아래자 신격은 전승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sup>63)</sup> 따라서 後朝鮮王 準이 바다를 건너 마한의 땅에 이르러 마한을 공격하고 韓王이라 칭했다는 것이 후한서 東夷傳 韓條에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準이 마한의 인심을 얻기 위해 마한 고유의 신화를 이용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60) 조자현, 「백제 신화에 있어서 부여계 신화와 마한계 신화의 연구」, 상명대 석사, 2000.

7. 치밀한 논의는 아니지만, 백제 신화를 부여계와 마한계로 분리하여 논의하고 있다. 즉 백제의 건국신화는 북방계 유이민인 온조계통의 신화와 전주 토착집단이었던 마한 계통의 신화가 전혀 다른 형태를 띠며 공존하게 되었고, 이것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되었다고 보았다.

61) 아래자설화에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성훈, 「아래자 설화의 신화성과 용 신앙」, 대전대 석사, 2002.10; 김군태, 「한·중·일(韓中日) 아래자형 설화의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2.

62) 이지영, 『한국신화의 신격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1995.

63) 이지영, 「<아래자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전승에 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북방에서 남방으로 이동하면서 가져온 신화가 바로 아래자신화일 수도 있음을 논해야 한다. 한미옥이 주장한대로 서동설화와 같은 마한 고유의 아래자신화가 準에 의해 이용되었음을 인정한다면, 이는 부여계통의 백제가 마한을 정복하고서 토착신화인 마한계통의 신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기에,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야 백제신화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제의와 신화의 관계는 일찍이 제의학파에 의해 주장된 이래 한국에서도 그러한 관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구체적 논의를 통해서 그것이 논증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제의는 신화의 신성성을 확보해주는 근거로서만 이해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의가 어떻게 신화의 서사적 성격을 만드는가에 대해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한 논문이 제출되었는가 하면, 신화가 구연되는 현장을 통해서 신화와 제의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는 논문이 제출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는 연구 성과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정<sup>64)</sup>은 주로 이론적 측면에서 제의와 신화의 관계를 논했다. 그에 의하면 신화의 성격은 이야기의 신성성을 수용하게끔 하는 제의 연행의 담론적 효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의 서사 구성원리와 소통 원리는 제의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이다. 건국신화의 서사 구성은 탄생, 성장, 결혼, 즉위 등의 제의적 신화소로 구성되며, 이것들은 시간적 원리에 따라 단선적·직선적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삶의 중요 국면에서 행해지는 제의들과 일치한다. 반면 무속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제의적 신화소들은 공간적 원리에 따라 중층적·순환적이며, 災殃祭儀와 일치한다.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의가 치러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서사의 구성요소와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신화가 재현하고 있는 세계상의 의미론을 밝히고 있는데, 건국신화나 무속신화나 神性과 人性(세속)의 대립 체계를 통해서 그 의미가 파악된다고 보았다. 건국신화는 신성한 존재가 인간세계에 출현해서 그 세계를 성화시키는 내용인데 비해, 무속신화는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친교와 교환의 종교적 제의

64) 오세정, 「한국 신화의 제의적 서사 규약과 소통 원리 연구」, 서강대 박사, 2003.

화를 통해 신성과 인성의 소통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국신화에서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문화형의 인간 존재가 나타나 새로운 문화 창조를 이룩한다. 그러나 무속신화에서는 非神的 존재가 신으로 좌절하게 되는데, 이때 희생과 成巫式의 절차가 요구되며, 그러한 희생과정에서 전승집단의 중심가치관이나 이념이 강조된다. 또한 신화와 제의를 메시지와 소통의 관계 중심으로 살피면, 제의 현장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고정적으로 전승되는 정전적 메시지와 상황에 의존하는 자기—지시적 메시지로 나뉘다면서, 건국신화의 메시지는 정전적인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기록자와 당대의 세계관의 영향으로 약간씩 개정되는 자기—지시적 메시지가 존재하는데 비해, 무속신화에서는 자기—지시적 메시지가 전체 메시지의 성격을 변화시키거나 결정하기 때문에 정전적인 메시지조차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건국신화와 무속신화가 소통되는 제의 성격의 차이, 즉 정치적 제의와 종교적 제의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오세정의 연구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신화의 성격(서사 구성원리와 소통원리)은 곧 제의의 성격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건국신화와 무속신화를 대상으로 하여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건국신화와 무속신화를 이렇게 대척적인 지점에 놓고 논의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무속신화만 하더라도 여러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제의의 성격이 약간씩 다르다. 그렇다면 무속신화 내에서도 그 제의의 성격에 따라 신화의 성격이 달리 만들어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무속신화란, 매우 폭넓은 개념 아래 그 구체적 실상을 감춰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에 비해 최근 당신화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현장론적 연구를 참조하면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신성성을 확보하게 되는가 등의 구체적 결론을 얻게 된다.<sup>65)</sup> 예컨대,

65) 당신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제주도의 당신화가 연구 대상이 되었으나 요즘은 육지의 당신화를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 제출되고 있다. 고광민, 「제주도처녀당본풀이연구」, 제주대 교육학 석사, 1982.;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대 박사, 1989.;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 박사, 1994.; 유달선, 「제주도 당신본풀이 연구」, 대구대 박사, 1994.;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 1999.;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 <원천강본풀이>, <새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 2002.;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 2002.; 표인주,

편성철<sup>66)</sup>은 당신화와 洞祭가 口碑相關物이라는 시각에서 삼척 해안 마을의 당신화와 동제를 분석하였는데, 동제가 살아 있는 신화의 전승현장이고, 당신화를 통해 동제가 강화되고 신성성이 부여됨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김현선<sup>67)</sup>은 당신본풀이가 특정한 지역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현장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검토하여, 당신본풀이가 마을의 구비역사, 지역사, 신앙생활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장론적 연구는, 제의와 신화가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어 어느 것이 일방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화를 대상으로 한 현장론적 연구는 개별 연구를 통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여러 당신화를 종합적으로 살핌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에 대한 소논문으로 박종성의 연구를 주목한다.<sup>68)</sup> 구비 전승되는 별자리 신화인 <삼태성>과 <북두칠성유래담>을 대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서사적 연계성을 보이는 <제석본풀이>와 <칠성본풀이>를 포괄하여 별자리 신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나아가 <삼태성>—<제석본풀이>—<주몽신화>의 계열과, <북두칠성유래담>—<칠성본풀이>—<사신칠성본풀이>—<금와신화>와의 계열을 설정한 뒤, 전자의 계열에서는 칠성관련 신화가 무속신화와 건국신화에 연결되어 있는 반면, 후자의 계열에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신앙의 양상만 띤다고 했다. 기존에 다루지 않던, 별자리 신화를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제의 참신성은 인정된다. 그리고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별자리를 신화와 연결시켜 해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신화 연구의 외연을 넓힌 작업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주제의 참신성, 외연을 넓힌 작업이 논의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과 연결되지 못하고

「전남의 당신화연구」, 전남대 박사, 1994.; 박혜령, 「소야 당신의 신화적 정체화와 제의의 당위성」, 안동대 석사, 1997.; 김정미, 「여원형 당신화의 형성과 전승에 관한 연구—일원산 황씨부인당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안동대 석사, 1997.; 유여중, 「경기도 안산 잣머리 마을신화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98.; 이세나, 「괴시마을 당신화의 성립과 변화에 관한 연구」, 안동대 석사, 2000.

66) 편성철, 「삼척 해안 지역 당신화 연구」, 경희대 석사, 2004.2.

67) 김현선, 「제주도 토산당 옷당본풀이와 알당본풀이의 비교」, 『한국사상과 문화』 1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3.

68) 박종성, 「구비전승의 <三台星>과 <北斗七星> 신화 일고—무속신화와 건국신화의 상관성 및 신앙의 양상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있다.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만 보면, 이질적 신화들이 상호 긴밀한 신화인 것처럼 생각되나, 논리적 전개를 통해 이것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추론에 추론을 거듭하다 보니, 논자가 설정한 두 계열이 주몽신화나 금와신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논자도 인정하고 있듯 중국 내 조선족의 <삼태성>과 <제석본풀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토의 함흥지역에서 채록된 <삼태성>을 근거로 <제석본풀이>와 연결시키고 있으나, 함흥지역의 <삼태성>은 <제석본풀이>의 줄거리에 神僧의 세 아들이 죽어 삼태성이 되었다는 내용만 추가된 것일 뿐이어서, <제석본풀이>의 내용이 민담 형태로 구연되면서 변이를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일 신화의 이본이니 이 둘은 연결된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중국 내 조선족의 <삼태성>과 <제석본풀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중국 내 조선족의 <삼태성>과 함흥지역의 <삼태성>은 삼태자가 하늘의 삼태성이 되었다는 것 말고는 서사적으로 일치되지 않으니, 함흥지역의 <삼태성>을 연결 고리로 중국 내 조선족의 <삼태성>과 <제석본풀이>가 연결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모티프 하나만 일치되는 것을 가지고 작품 전체가 마치 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조선족의 <삼태성> 내용의 분석을 <제석본풀이>나 <주몽신화>와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함흥지역의 <삼태성>을 제외하면 이런 모티프가 전국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 <제석본풀이>의 내용 중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든, 평양의 정문학 구연본 <삼태자풀이>에서 “서장애기 初更에다 꿈을 꾸니 구슬 세 알 품에 품고 三太星과 놀았더라” 부분을 근거로 하여 <삼태자풀이>에서의 삼불제석이 곧 삼태성이라 단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태몽일 뿐이며 또한 이들이 삼태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한편, 음의 유사성에 기대 동부여왕 金蛙의 出自處인 ‘鯤淵’을 무당의 神鏡을 지칭하는 ‘곤을’과 상통하는 용어로 보고, 神鏡의 背面에 그려져 있는 일월칠성이나 일월성신과 연결짓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古代의 일을 추정함에 있어, 음의 유사성이 학문적·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에서 “한국의 별자리신화들이 크게는 한국의 신화적 그물망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듯,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므로 더 정합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신화를 제외한 전설, 민담 분야에서는 세 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다. 손문숙<sup>69)</sup>, 권복순<sup>70)</sup>, 김성식<sup>71)</sup>의 연구가 그것이다. 손문숙은 설화 속에 제시된 다양한 며느리상을 통하여 전통적인 관념 속의 며느리의 삶, 며느리의 위상을 살폈다. 여성들이 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왔던가를 천착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 며느리 설화의 언술내용의 주체와 지향, 언술행위와 소통양상, 며느리설화의 여성주의적 양상을 언술론적 관점에서 살폈다. 언술내용의 주체와 그 지향하는 세계는 봉건적 윤리관과 절대 효, 타자의 계교와 개과천선, 세계대응과 문제해결, 치우와 해학의 부조, 학대에의 항거와 재혼 등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리고 며느리설화의 언술행위와 소통양상은 구술방식과 결속구조, 서사물의 구성요소, 구술자의 시점, 향유자의 자질과 개입 등 몇 가지 층위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구술방식과 결속구조는 선조적 구술과 복합적 구술로 이루어졌고, 개요·소개·분류행위·평가·결과 또는 해결·종결 등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구술자의 시점은 전지적 시각(때로는 복수시점)의 전개를 통해 사건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사건을 구술해 나가는 동안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 주장 등을 내세워 사건을 분석하고 논평을 가하는 논평적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설화의 여성주의적 양상을 살핀 데서는 순응에 의한 궁극적 승리, 주체에 의한 자아실현, 해학적 저항과 개선의지, 상황의 처절화와 현실인식 등으로 이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설화 내용의 정리 차원에서 논의를 그쳐, 심화된 연구라 하기에 어렵다.

권복순은 인물전설의 존재양상이 어떠한가라는 물음을 통해 인물전설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였다.<sup>72)</sup> 그 결과, 인물전설을 형성하는 본질적 요인은 인물이 아니라 인물 간에 얽혀 있는 내부적 형

69) 손문숙, 「한국 며느리설화 연구」, 동아대 박사, 2003.12.

70) 권복순, 「인물 전설의 서사 구성과 성격—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대 박사, 2003.

71) 김성식, 「백두산설화 연구」, 조선대 박사, 2004.2.

72) 권복순, 「인물 전설의 서사 구성과 성격—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대 박사, 2003.

성 원리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 인물의 이야기에서도 전설적 요소와 신화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역사성이 뚜렷한 인물의 예에 해당하더라도 전승자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면 신화적 인물로 격상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등장인물은 가변적 요소라는 것이다. 또한 이야기를 형성하는 실제적 요인은 전승층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전승자 의식이 중요한 관건이며, 구체적 사유체계로는 초월적인 성격과 세속적인 성격이 주축이 된다는 것이다. 인물전설의 본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존재방식은 초월계열과 세속계열이라는 두 계열에 의해서인데, 초월성과 세속성의 서사 의미는 인물전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 있으며, 이는 곧 인물전설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의식을 밝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물전설의 존재양상은 전승자의 의식에 의하며, 그것은 초월적으로도 세속적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인물 간에 얽혀 있는 내부적 형성 원리’란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바꿔, 인물전설의 존재양상을 해명하고 있다.

김성식은 백두산설화를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세계관, 현실인식, 상상력 등을 고찰하였다.<sup>73)</sup> 그 결과, 백두산설화의 특징으로 신화·전설·민담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다른 설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갈등양상이 발견된다는 점, 신과 신의 갈등과 대립·신과 인간의 갈등과 대립·인간과 인간의 갈등과 대립 등 다양한 갈등과 대립 양상이 발견된다는 점, 갈등과 대립의 전개는 선악의 이원론이며, 그에 따른 결과는 생사와 승패로 귀결된다는 점, 대립구조 중 하늘과 물의 대립구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사회 유지 기능으로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백두산 설화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민족의 세계관을 밝혔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정작 백두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효행설화에 대한 소논문으로 이인경의 연구가 주목된다.<sup>74)</sup> ‘노후의 삶과

73) 김성식, 「백두산설화 연구」, 조선대 박사, 2004.2.

74) 이인경, 「구비설화를 통해 본 노후의 삶과 가족」,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12.

가족의 기능'이라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화 전승자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제까지의 효행설화 연구는 효행의 주체인 자식의 태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후를 살아가는 노인들 자신의 삶의 태도와 욕망까지를 포괄하겠다고 하였다. 그 결과, 구전 효행설화에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가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설화 전승자들은 늙은 부모를 봉양해야 할 책임이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딸이나 양자도 부모의 노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준다는 점,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 노인들이 가족 내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연로한 부모를 자녀들이 반드시 모시고 살면서 부양해야 한다는 경직된 효의 관념에서 벗어나서 노인부모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다양한 형태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효의 개념을 설정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 홀로된 노인들은 자식들과의 불편한 동거보다는 새로운 배우자와의 결합을 통해 자신만의 독립된 가정을 꾸리려는 욕망을 보인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학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구비설화의 연구가 현대 가족구성원들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임을 보여준 연구라고 하겠다.

문헌설화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강성숙은 15세기 소화의 문화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줘 이 시기 소화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었다.<sup>75)</sup> 15세기 소화는 이 시기 훈구 관인들의 이야기 문화를 배경으로 창작되었는데, 시대의 이념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었다고 믿었던 15세기 문인들은 지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학 활동을 실행에 옮겼고, 이러한 태도에서 소화가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미적인 전범이 현실에 이미 갖추어 발현되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15세기 소화 작자들은 소화에서도 사물에 깃든 道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75) 강성숙, 「15세기 문헌 소화 연구—태평한화골계전·용재총화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6.

는 것이다. 이어 제출된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sup>76)</sup>

15세기 문헌소화 향유층의 정서적 기반과 미의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논문에서, 우선 단순한 형태의 경험적 소화들을, 이야기의 핵심 문제가 제시되고 해결되는 양상에 따라 상황제시구조와 해결지향구조로 나누고 있다. 사건이 단순히 인물의 상황을 제시해주는 성격의 가질 뿐 해결을 지향하지 않는 구조가 상황제시구조이고, 주인공의 주체적인 상황변화의지나 문제해결의 의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해결지향구조인데, 상황제시구조가 변하지 않는 세계의 완전성, 독립성을 옹호한다면, 해결지향구조는 세계가 내포하는 결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리고 해결지향구조는 개인적 문제가 주로 다루지는 상황제시구조에 비해 확장된 문제의식을 보여주면 올바른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소화에서의 웃음 유발조건은 이야기의 구조 속에 있기도 하지만 표현형식에서도 드러난다고 하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소화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전범과 전례에 대항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전면적이고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 상황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골계적 표현 방식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의 기록에서는 독특한 말의 형상화에 주력한다든가, 같은 형식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소화의 특성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골계의 표현은 차이의 부정, 사고 진행의 차단을 통해 새로운 의미향(우회적 공격,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만들어 내며, 이런 의미가 생성되는 데에는 차이의 인식, 차이의 無化, 부조화의 조화로 구성되는 골계의 사고과정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화 향유자들에게 이런 골계적 사고방식과 표현이 의미를 갖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인식을 통해 세계를 양가적이고 동적인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살면서 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다양한 면모를 포용적으로 인식하려 했던 소화 향유층의 태도로 볼 때, 15세기 관료 문인층에 대한 단선적 평가는 보완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15세기 소화는 이 시기 사대부들의 이야기문화, 생활문화를 해석하는 중요

76) 강성수, 「15세기 문헌 소화 연구」, 이화여대 박사, 2004.2.

한 자료이며, 구조·기법·형식면에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미감의 원형이자 토대로 작용하며, 오늘날의 현대 유머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강옥은 18세기 야담집인 학산한언의 두 지향, 즉 비현실지향과 현실지향을 다룬 논문에서 현실지향과 비현실지향의 공존양상과 논리를 살피고 그 야담사적 의의를 살폈다.<sup>77)</sup> 신돈복은 귀신담을 비롯한 기이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만물의 존재원리를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아, 이런 이야기들을 야담집에 수록하였다고 하였다. 둘의 공존양상을 비현실 지향, 동물세계의 기이, 비현실과 현실을 매개하는 지상선과 이상향, 현실지향 등으로 나눠 살폈다. 그 결과 어느 쪽이든 이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념의 구현을 주 서술시각으로 삼았고, 거기에 문제의 해결, 운명의 실현, 욕망의 충족 등의 서술시각들이 결합되어 더 다채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존논리는 경험세계의 확장, 기이의 원천에 대한 성찰, 기이의 본질과 의미 발견, 역설적 회통과 서술시각의 통합 등으로 나눠 살폈다. 그 결과 이것들은 한 작품에서 이리저리 서로 엮여 있고, 또 공통적으로 욕망 실현을 추구한 흔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부추겨진 사람의 욕망을 비판하면서도 은근히 욕망의 귀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학산한언이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사의 변화를 감지했음을 의미하는바, 학산한언이 조선후기 야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정신사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를 서술시각의 통합을 통하여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권두환은 아메노모리(雨森芳洲, 1668—1755)가 草梁 倭館에 2년 간 체류하면서 구어체로 채록한 설화를 소개한 바 있는데,<sup>78)</sup> 그 소재나 설화구연의 套式 등이 야담집에 기록된 것과 흡사하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당대의 구전이야기 환경을 이해하는 방편으로서 조선조 문헌설화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발하게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문헌설화를 문학적

77) 이강옥, 「초기 야담집 학산한언의 서사지향 연구: 현실지향과 비현실지향」,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12.

78) 권두환, 「小倉文庫本 酉年工夫에 대하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53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5.

관점에서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 구연이라는 구술 문화적 맥락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2. 민요(근대가요 포함)

최근의 민요 연구는 음악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가세로 문학 위주의 연구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다. 민요 전문 학술지인 『한국민요학』에 실린 논문의 면면을 보면 그러한 경향이 쉽사리 드러난다. 민요는 문학이면서 음악이기도 하니 음악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늘어난 것은 크게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문학이나 민속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민요 연구 경향은 다분히 지역주의적이면서 현장주의적 경향을 갖는다. 강원도권의 강동학, 전남권의 나승만, 영남권의 권오경, 충청권의 이창식 등이 각자의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해당 지역의 민요 특징을 밝혀내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인 관심사는 약간 달리고 있다. 그중 권오경과 나승만의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권오경<sup>79)</sup>은 영남 민요의 특성 및 지역간의 문화적 교섭양상에 따른 민요의 전승 양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먼저 영남 민요의 특성을 밝히려는 논의에서, 그는 영남지역에 전승하는 <논매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여 그 전승 실태를 해명하고 있다. <논매는 소리>의 가창법과 받는 소리인 뒷소리는 지역별로 일정한 유형을 지니기 때문에 <논매는 소리>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뒷소리와 매기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뒷소리는 그 민요의 장르적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주는 요소인 동시에, 그 소리를 가창하는 구성원의 결속과 일체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영남지역의

79) 권오경, 「영남권 <논매는 소리>의 전승양상과 사설구성의 특징」,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 6.; 권오경, 「민요 교섭양상과 문화적 의미—영·호남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13집, 한국민요학회, 2003.12.; 권오경, 「영남권 민요의 전승과 특징 연구—전이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29호, 우리말글학회, 2003.12.

<논매는 소리>의 구성을 <시작소리—긴소리—짧은 소리—매조지는 소리(쌘씨는 소리)—끝소리>로 파악했다. 한편, 경계지역(또는 전이지역)에서의 민요의 전승원리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계지역에서의 민요교섭 현상을 점진적 교섭, 돌발적 교섭, 쌍방향 교섭으로 나누어 영호남의 경계지역의 민요전승을 살핀 논문에서 그는 민요전파의 다양한 종류가 생기는 이유를, 전파된 민요를 받아들이는 지역민의 민요에 대한 필요성(기능성)과 예술성, 친밀성(정서, 감각)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민요교섭의 과정에서 소리가 변화하는 실제 이면에는 교섭을 일으키거나 가능하게 하는 ‘변화의 원인’이 내재한다면서 내적·외적요인에 의한 변화, 중심적 변화와 주변적 변화, 오류 및 창조에 의한 변화, 특수성의 보편화 및 보편성의 특수화에 의한 변화 등 네 가지를 지적하였다. 이어 교섭에 따른 민요전승의 문화적 의미를 남성중심의 사회조직 강화와 그 반향남성중심의 사회에 대항하거나 혹은 여성의 독자적 문화 혹은 남성과 여성의 혼합문화의 생성도 민요교섭의 한 현상임), 평야문화와 협곡문화의 교섭(밭 매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의 교섭이 강하게 나타남), 불교문화와 유교문화의 적층성(두 지역 모두 불교문화는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는 데 비해 유교문화는 남성중심으로 나타남. 영남은 남성·여성의 소리가 고루 발달하여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비해 호남은 남녀의 소리분화를 의식하지 않음)이라는 측면에서 점검하였다.

영남 민요권을 6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 6개 민요권 간에 존재하는 경계지역의 민요를 검토한 데서도 마찬가지로 경계지역 민요의 전승원리와 특징을 해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권오경은 영남권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지역의 민요특성을 포함하여 영남권 민요의 전승과 특질을 거시적·체계적으로 살피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남 민요의 개별적 특징이 연구되어야 하고, 또한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민요의 전파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전승원리와 특징은 무엇인가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요는 문학이면서 음악이기에, 이러한 성과가 음악적 측면에서의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요의 전승주체는 역시 민요 소리꾼이라 할 수 있는

므로, 민요 소리꾼을 제외한 채 그 노랫말만 가지고 민요의 전승원리 및 특징을 추출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권오경이 다분히 노랫말에 초점을 맞춘 문학적 측면의 연구경향을 보여 주었다면 나승만은 민요의 전승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민요의 전승원리를 파악하려는, 소위 민속학적 측면의 연구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을 분석하고, 그것이 민요의 전승과 어떤 맥락 관계에 있는지를 해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sup>80)</sup> 그는 전남 내륙지역인 화순군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 분석을 통해 내륙 산간지역 민요 소리꾼의 생애 과정을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발매기노래와 길쌈노래의 전승 맥락을 고찰한 논문<sup>81)</sup>에서, 화순의 민요 소리꾼들은 자신의 역량을 창조적으로 발현할 기회를 적절하게 갖지 못한 채 발매기노래와 길쌈노래를 견고하게 지켜왔고, 이 두 민요로 지역 문화행사에 출연할 정도로 두 민요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노래로 생각하고 있는 바, 이 두 민요는 화순군민들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낸 삶의 문화적 기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극단적 고통을 수용하고 그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였다는 것이다. 설화에 있어서도 화자론이라 하여 화자의 삶과 그의 구연목록 간의 상관성을 따지려는 논의가 있었고, 그것은 대체로 상호 긴밀한 것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과 민요의 관련성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민요는 自足的 성격이 있기에 생애담과 민요의 관련성은 상호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여러 민요 소리꾼을 조사하여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 생애담과 민요의 관련성이 밀접할수

80)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과 민요와의 관련에 대한 고찰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 나승만, 「신지도 민요 소리꾼 고찰」, 『도서문화』 제14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6.; 나승만, 「노화도 민요 소리꾼들의 생애담 고찰」, 『도서문화』 제15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7.; 강진욱, 「여성 민요 창자 정경영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나승만,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 조사와 사례분석」, 『구비문학연구』 제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홍미희, 「민요 소리꾼 이남조의 생애담 연구」, 목포대 석사, 2000.; 방고은, 「개인 구연자에 의한 민요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연구—김숙이의 경우를 중심으로—」, 울산대 석사(교육학), 2000.; 김유희, 「여성소리꾼의 생애사에 따른 민요의 자기화와 창조적 형상화」, 안동대 석사(민속학), 2002.12.

81) 나승만, 「전남 내륙지역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 분석과 전통 민요의 전승맥락—전남 화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27호, 우리말글학회, 2003.4.

록 특수한 사례보고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갈래가 바로 雜歌나 新民謠와 같은 대중가요인데, 장유정은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구비문학의 갈래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장유정은 1930년대의 신민요를 대상으로 한 논문<sup>82)</sup>에서 그동안 신민요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체적 입장이 부정적으로, 즉 ‘변종’과 ‘잡종’으로 이해되었다고 했다. 또한 ‘저항’과 ‘항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극적인 저항의 모습을 찾아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려면 기존의 연구자들이 고려하지 않은 점, 즉 수용자에 대한 고려, 즉 신민요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수용을 중요시해야 한다면서 신민요를 생산과정, 수용과정, 작품이라는 삼각구도 속에서 살펴보자고 하였다. 그런 삼각구도 속에서 보면, 신민요는 전통 민요에서 차용한 여러 가지 전통적인 요소를 당대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창작해서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민요는 우리 것에 대한 추구(생산자)와 갈망(수용자)이 교차하는 접점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것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려는 실험과 시도의 결과가 신민요라는 것이다. 또 다른 논문<sup>83)</sup>에서는 20세기 초(1907—1945)의 유성기 음반 『가사집』에 수록된 가요에 대해 갈래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즉 서사가요—판소리, 교술가요—잡가, 희곡가요—漫謠, 서정가요—민요, 트로트, 신민요의 분류가 그것이다.

신민요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그것을 갈래분류의 틀 속에서 보려 한 것은 생산적인 학문 논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민요 수용자의 측면을 살필 때 음반 문예부장들의 견해가 피력된 글이나 당시의 대중가요 평론가나 연구자의 언급만을 통해, 신민요를 포함한 대중가요의 수용자들의 기호와 취향을 추론하는 것은, 정합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일

82) 장유정, 「1930년대 신민요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수용」,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83) 장유정, 「갈래를 통해 본 20세기 초 한국 가요의 전개 양상—유성기 음반 가사지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10호, 국문학회, 2003.12.

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당시의 신민요를 즐겼던 수용자들을 면담 조사하여 논의를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토속민요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신민요에 적극적·긍정적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가 부정적이었으니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신민요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느 쪽으로 보는 시각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이분법적 논쟁에 역시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다. 어떤 대상이건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소재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데서 끌어왔지만, 음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민요는 상당 부분 일본식이나 서양식 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므로,<sup>84)</sup> 또 거기에 끌려 노랫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므로, 진실된 논의는 이런 것들을 포용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아울러 당대에는 신민요로 불렸지만 오늘날에는 전통 민요의 음악적 구조와 가사 붙임의 형식으로 바뀌어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sup>85)</sup>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잡가를 평가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자들이 잡가를 ‘변종, 잡종’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하여,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처럼 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정당하지 않다. 신민요는 전통 민요와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여 적극적 의미를 부여했으면서, 잡가는 “가요가 아니라 다른 문학 갈래와의 연관 속에 논하면 잡가의 갈래 귀속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주지하다시피 잡가야말로 기존의 시가와 끊임없이 교섭을 해온 갈래이고, 그것을 가장 특징으로 하는 갈래이다.<sup>86)</sup> 다시 말해서 ‘변종, 잡종’이니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갈래인 것이다. 잡가를 교술갈래로 포함시켜 논의

84) 김혜정, 「민요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음악학적 논의」, 『한국민요학』 제7집, 한국민요학회, 1999.

85) 김혜정, 「청춘가의 수용과 의미」,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86) 잡가의 교섭 양상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과제이다. 최근의 연구로 다음의 논문이 있다. 박애경, 「조선 후기 시조와 잡가의 교섭 양상과 그 연행적 기반」, 『한국어문학연구』 제4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8.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얽매이다가 그 본래적 성격을 간과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리고 변종, 잡종이니 하는 말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뉘앙스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순전히 연구자의 주관적 태도에서 생긴 것일 뿐 객관적 실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 3.3. 무가

무가에 대한 연구는 다음 판소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 연구보다는 무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른바 민속학적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 중 특기할 만한 연구를 몇 개 검토해본다.

이용범은 한국무속에 나타난 신의 유형과 성격을 서울지역 무속을 중심으로 논하였는데, 이 논문<sup>87)</sup>에서 그는 무속신의 체계가 나름의 구조와 질서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재수굿에 나타난 무속신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을 조상, 가신, 지역신이라 했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견해와 다른 것이기도 하고, 같은 것이기도 하다. 다르다는 것은 한국 무속신의 체계가 정합적이지 않다고 본 기존 견해와 배치되기 때문이고, 같다는 것은 한국 무속신의 중심이 조상, 가신, 지역신이라 주장한 때문이다. 한국의 무속신이 나름의 구조와 질서를 갖췄다고 본 것은 지역 범위를 넓혀 힘써 주장해야 할 바이다. 그리고 조상, 가신, 지역신이 무속신의 중심이라 한 것은 이들 신이 각 지역의 굿에서 무속 고유의 신으로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기에 특별한 주장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 세 신격을 중심으로 전국의 굿거리에서 이들 신격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면 소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태한은 서울굿 호구거리의 의미를 연구하였다.<sup>88)</sup> 이 연구는 세부 굿거

87) 이용범, 「한국무속에 나타난 신의 유형과 신격」, 민속학연구 제13호, 국립민속박물관, 2003.12.

88) 홍태한, 「서울굿 호구거리의 의미 연구」,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6.

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재수 굿이면 재수굿 전체를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굿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굿거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굿의 미시적 연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호구거리의 무가의 분석을 덧붙임으로써 민속적 연구와 구비문학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바, 대개의 연구에서 굿 현장에 대한 보고나 설명에 그친 것에 비하면 권장할 만한 연구방법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호구거리의 호구신에는 굿판을 주도하는 여성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봄으로써 굿판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의식과 굿거리와의 상관성을 암시하고 있기도 한데, 이 역시 무가 연구의 방향이 미시적인 쪽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된다.

무가가 불려지는 환경은 굿이 지금도 살아있기에 그 전승환경을 기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승환경만을 기술하고 그 환경 속에서 불려지는 무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갈수록 무시되는 것은 구비문학의 연구 관점에서 볼 때 무척이나 아쉬움을 준다. 전승환경과 무가 분석의 접합을 시도하는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전통 공연문화의 관점<sup>89)</sup>에서 굿과 무가를 기술하는 연구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3.4. 판소리

초창기 판소리 연구는 사설에 대한 문학적 분석 위주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국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연구되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하여 문학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었다. 그러나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갈래이고, 청중의 호응에 기대어 성장해나가야 할 갈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설의 문학적 분석에만 머무르고 말 수 없다. 판소리 공연 현장에서의 요구에 판소리 연구가 부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판소리 연구자들은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

89) 굿을 전통 공연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다음의 연구가 주목된다. 홍태한, 「서울 진오기굿의 공연예술성」, 『공연문화연구』 제8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4. 2.; 황루시, 「황해도와 평안도 뉘굿의 공연예술성」, 『공연문화연구』 제8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4.2.

고 있다. 판소리는 광대, 창본, 고수, 청중, 장단, 연행 현장, 오늘날 판소리의 전수 및 교육, 창작 판소리의 현황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갈래인데, 최근의 판소리 연구자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판소리를 보는 국문학 연구자들의 시각이 광대나 창본, 판소리의 연희적 성격 등으로 시각이 확대되고, 판소리를 전공하는 음악학자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인식이라 할 것이다.

판소리 광대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의 오류를 바로 잡았는데, 이는 판소리 광대 연구에 관한 한 현지 조사가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장재백의 본명이 장재백이라는 것,<sup>90)</sup> 이화중선의 출생지가 목포이며 남원권번에 있었다는 것<sup>91)</sup> 등이 그것이다. 근대 판소리 광대에 대한 정보는 실제 『조선창극사』나 박황의 『판소리 이백년사』 등에 의지한 형편이었는데, 연구 결과 그 기록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송방송 역시 근대 오명창의 판소리 전승양상을 검토한 논문<sup>92)</sup>에서 『조선창극사』에 나오는 판소리 5명창의 종목 및 장기와 더늠을 방송자료와 음반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서로 다름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필자가 최근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 장판개의 경우, 『판소리 이백년사』에서는 “학순 장판개(鶴舜 張判介)는 1885년 전라남도 순창군 옥과 태생이다.”(183면)라고 되어 있으나, 그의 부친 張石中(장문근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류임. 호적명은 張錫中)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1886년 11월 8일 전남 곡성군 겸면 현정리 81번지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자명이 張判蓋이며, 호적명은 張學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소리 광대의 창본 분석도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신재<sup>93)</sup>는 19세

90) 임성래, 「이영민 한시를 통해 본 판소리 명창의 세계」, 『판소리연구』 제10집, 판소리학회, 1999.; 최동현, 「장재백과 그 일가의 판소리 인맥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91) 최혜진, 「이화중선(李花中仙)의 생애와 예술성」, 『판소리연구』 제15집, 판소리학회, 2003.4.

92) 송방송, 「일제하 판소리의 전승양상—근대 오명창을 중심으로—」, 『판소리 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93) 전신재, 「<춘향가>와 죽음의 미학」,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12.

기 후반기에 활동한 장자백의 <춘향가>에서 춘향이 감옥에 갇히어 죽음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꾸는 두 가지 꿈, 즉 죽음의 세계로 가서 죽은 사람들을 만나는 꿈(황릉묘 장면)과 죽음이 암시되는 흉몽(봉사 해몽 장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몽 장면에서 춘향은 巫俗的 사유로써 죽음의 공포를 덜어내는 바, 이 장면의 지배적 정서는 끝결이며, 풍부한 너름새로써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연출법을 취한, 서민계층을 위한 버전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황릉묘 장면에서 춘향은 유교적 이념으로 죽음의 공포를 초극하는바, 이 장면의 지배적 정서는 숭고이며, 창만을 이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연출법을 취한, 지식인층을 위한 버전이라고 하였다. <춘향가>가 형성되던 초기에는 해몽 장면만 있었고, 그 후 어느 시기에 황릉묘 장면이 끼어들어 두 장면이 공존하게 되었으나, 실제 공연에서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한 장면만 선택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후에 해몽 장면이 탈락하고 황릉묘 장면만 남았는데, 이것도 탈락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장면의 부침과정은 판소리의 수용계층이 확장되어 온 과정이고, 판소리의 공연양식이 연극중심에서 음악중심으로 바뀌어 온 과정이며, 비극성이 약화되어 온 과정이라고 결론지었다. 판소리의 좌상객이 점차 양반 계층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그것을 19세기 판소리 광대의 창분을 통해 입증해낸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충분하다. 그러나 장자백 <춘향가>의 많은 장면 중에서 왜 해몽 장면과 황릉묘 장면만 선택해서 분석하였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고, 또한 다른 장면들의 분석을 통해서도 결론에서 제시한 논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판소리의 수용 계층이 지식인층으로 확대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요소가 탈락만 된 것인가, 오히려 첨가된 요소는 없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배적 정서가 점차 숭고로 흐르게 되었다면, 판소리 특유의 미학이라 할 수 있는 해학과 끝결의 요소는 어떻게 마련되고 유지되어 왔던 것인가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 시기 판소리 창분의 실상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20세기 판소리 광대의 창분도 분석되고 있는 바<sup>94)</sup>, 이는 앞으로 현장에

94) 최난경, 「박녹주와 박초월의 <흥부가> 비교연구—동서편제와 관련하여—」, 한국성신문화연구원 박사(음악학), 1999.; 강윤정, 「박동진 판소리 창분 연구」, 충북대 박사, 2004. 2.

서 직접 채록된 창본의 분석으로까지 그 연구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을 예견하게 된다. 오늘날의 판소리 교육 및 전승 상황이나 창작판소리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현장론적 연구로까지 나아갈 여력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운정은 몇 해 전 작고한 박동진 명창의 판소리 창본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판소리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하였던, 판소리 창자의 창본 연구라는 시각을 지니고 출발하였다고 하면서, 박동진의 예술적 생애를 살펴보고, 그의 판소리 창본 세계를 파악함으로써, 박동진 판소리 창본의 판소리사적 의의를 밝히려겠다고 하였다. 밝힌 바에 의하면, 박동진 예술 활동의 주요 특성은 기존의 유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완창 판소리라는 새로운 공연방식을 탄생시켰다는 점, 생동감 있고 감정 표현이 뛰어난 연행을 하였다는 점, 판소리의 레퍼토리를 확충시켰고 국악공연의 발표형식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점, 신재효의 <광대가>에 나오는 광대의 사법례 기준에 가장 적합한 광대였다는 점 등으로 정리되었다. 창본의 전승계보는, 춘향가는 정정렬의 서편제 계열, 흥부가는 박지홍의 서편제 계열, 수궁가는 유성준의 동편제 계열, 심청가는 김창진의 중고제 계열, 적벽가는 조학진의 동편제 계열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창본의 사설 구성은 등장인물의 개성적 형상 강화, 골계 지향의 희극적 묘사 증대, 대중적 기대 수용과 교훈성 약화, 정서적 대목의 약화와 현장감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가장 주요한 특징은 아니리 구연방식이라 하였다. 이것은 박동진이 판소리창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에 대한 주관적 감정 개입, 재담과 사적 담화의 삽입, 청중의 반응을 가정된 문답, 후일담 증대와 극적 긴박감 제언 등으로 실현되었으며, 그 서술양상은 서술상황의 다양한 변화, 생동감 있는 대화의 확장, 인물의 내적 사고 과정 부연, 상황 의존적 언어표현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박동진은 근대 5명창에게 수업 받은 마지막 세대가 지니고 있는 판소리의 전통성과 현대 공연 무대 형태와 관객의 기호에 걸맞게끔 변형된 대중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창자, 즉 판소리의 전통성과 대중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면서 전승 단절의 위기에 있던 판소리를 부흥시킨 창자, 실전 판소리를 복원해낸 최초의 완창 판소리 창자, 판소리를 창작하여

판소리의 소재를 넓힌 창자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판소리 광대의 실상을 다각도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 가능성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다만 논문의 말미에서 지적하고 있듯, 판소리 현장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구연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커다란 한계이다. 오늘날의 판소리 광대를 다루면서, 현장성을 결여하는 것은 학문적 유기에 다름 아니다.

판소리 연구는 19세기, 20세기, 오늘날의 상황에 폭넓게 걸쳐 있다. 또한 판소리를 당대의 음악문화<sup>95)</sup>·지방문화<sup>96)</sup>·극장공연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각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정충권은 1900—1910년대 극장 무대 전통공연물을 분석한 논문<sup>97)</sup>에서 당시 극장 무대에서의 공연자는 광대와 예기들이었고, 주로 공연한 종목들은 판소리와 舊劇, 歌, 舞, 戲, 器樂 등이었으며, 판소리 광대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외 공연종목이나 공연방식 등을 함께 개괄적으로 살피노라 당시 판소리 광대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 판소리의 연행상황이 거의 극장공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장공연문화를 중심으로 한 판소리 위상의 역사적 변천을 따져보는 것은 근현대 이후 공연사뿐만 아니라 판소리의 공연변천사를 조망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3.5. 민속극(연희 포함)

민속극 연구는 여전히 기원과 형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편, 공연문화 또는 연희사의 측면에서 보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손태도가 한국 연희의 연구에 있어 정리되어

95) 성기린, 「1930년대 판소리 음악문화연구」, 서울대 박사(음악학), 2003.; 성기린, 「19세기 후반기의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판소리연구』 제15집, 판소리학회, 2003.4.; 성기린, 「18세기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한국음악연구』 34집, 한국국악학회, 2003.8.

96) 이훈상, 「조선 후기 사회 규범들간의 갈등과 향리사회의 문화적 대응—판소리 흥보전과 중재 문화의 발전—」,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97) 정충권, 「1900~1910년대 극장무대 전통공연물의 공연양상 연구」,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야 할 문제로서, 그 기원 문제를 들었던 것도 이러한 연구경향을 잘 보여준다. 손태도는 가면극이건 인형극이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속극 형태에서 고유신앙적 요소, 불교기악적 요소, 중국 나례적 요소를 개별적으로 찾아내어 이러한 요소들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지극히 지당한 제언이다.<sup>98)</sup> 그리고 연희 연구에 있어 새로운 전망으로 광대집단의 존재, 지방의 산대회와 나례회의 문제 등을 거론하였는바, 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산대회와 나례회의 문제에 관련하여 손태도는 경남지역의 오광대류 탈놀이에 주목하고 있다.<sup>99)</sup> 손태도의 논의에 의하면, 경남지역의 오광대류 탈놀이들은 근대 무렵까지도 있었던 전문적 놀이패였던 대광대패(숫대쟁이패)들의 오광대 탈놀이에서 나왔다. 서울에서 궁중의 나례의식에서 산대회가 성립되었듯 지방에서도 관아의 나례의식에서 산대회가 성립되었고, 그 산대회에서 밤마리 오광대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송석하, 최상수, 이두현 등이 나례의식이나 산대잡회에서 영남지방 탈놀이의 기원과 발생을 해명하려 하려 한 것(산대회기원설)과 그 맥을 같이 하지만,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를 입증한 것은 아니며, 지방 관아의 산대회는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다시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진태는 조동일, 정상박, 서연호가 그랬던 것처럼 지방의 민간제나 민간신앙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야류와 오광대의 발생지는 낙동강변인 초계 밤마리인데, 밤마리는 지리적·경제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착적인 굿문화·탈놀이에술과 같은 공연문화를 발달시킨 대표적인 곳이라고 함으로써, 자생적 발생설을 주장하고 있다. 손태도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sup>100)</sup> 이어 김해 가락 오광대의 지역 문화적 특성을 살핀 논문<sup>101)</sup>에서도, 김해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경남 지방 탈놀

98) 손태도, 「민속 연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99) 손태도, 「전통사회 지방의 산대회와 그에 따른 연희 현황들」, 『국어국문학』 제132집, 국어국문학회, 2002.12.; 손태도, 「전통 사회 지방의 산대회, 나례회와 그에 따른 현장」, 『역사민속학』 제16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6.

100) 박진태, 「초계 밤마리오광대의 유래·원형·위상」,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12.

이를 조망할 때 비로소 수영·동래들놀이, 진주·가산오광대, 통영·고성 오광대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작은 전승권’으로 구획될 전망을 갖게 되다고 하여, 야류 및 오광대의 자생적 발생설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산대회의 영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

전경옥은 궁정연희와 지방연희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고, 서로 영향을 주었다고 함으로써 각 지방의 자생적 연희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의 자생적 연희의 구체적 예로 민속극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선후기에 국가적 행사인 나례, 중국 사신 영접행사, 궁정 중심의 각종 행사들이 크게 위축되거나 소멸하면서 이에 동원되던 연희자들이 민간에 퍼져 공연활동을 벌이게 되어, 민간에서는 기존의 연희들을 바탕으로 혁신적으로 재창조한 본산대놀이 가면극, 판소리, 꼭두각시놀이 등 새로운 연극적 갈래들이 성립되었다고 함으로써, 민속극의 기원과 형성에 대해 손태도, 박진태와는 색다른 견해를 피력했다.<sup>102)</sup> 전경옥의 주장은 일종의 散樂雜戲起源說로 요약되는데,<sup>103)</sup> 마을굿놀이 계통 가면극(하회별신굿놀이, 강릉관노가면극)과는 달리, 본산대놀이 계통의 가면극은 전문적 연희자들이 전승하던 산악 또는 백희라고 부르던 연희들이 발전하여 성립된 가면극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가무백희·잡희·산대잡극·산대희라고 불리던 연희들도 바로 산악·백희인데, 산악·백희의 연희자인 洋인들이 18세기 전반기에 산악·백희 계통의 연희와 기존의 가면희들을 바탕으로 재창조해낸 것이 바로 본산대놀이라는 것이다.<sup>104)</sup> 따라서 본산대놀이의 영향 아래 서울과 경기도의 별산대놀이, 황해도와 해서탈춤, 경남의 야류와 오광대(통영, 고성, 가산), 남사당패의 덧뵈기 등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101) 박진태, 「김해 가락오광대의 지역문화적 특성—유래담·대본·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4.2.

102) 전경옥, 「조선시대의 각종 행사와 각 지방의 연희문화」, 『민속학연구』 제13호, 국립민속박물관, 2003.12.

103) 전경옥,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의 지역적 소통」,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6.

104) 이러한 주장은 그 전부터 피력했던 내용이다. 전경옥, 「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열화당, 1998.

이러한 주장은 최근의 저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sup>105)</sup>

한국의 민속극을 바라보는 전경옥의 기본 관점은 이러하다. ‘우리의 전통연회는 중국과 서역 연회와의 교류를 통해 성립·발전했고, 자생적 전통 연회들도 외래 연회와의 관련 속에서 더욱 발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자생적 전통 연회는 결코 오늘날의 ‘본산대놀이 가면극, 판소리, 꼭두각시놀이’는 아니다. 이것들은 전경옥의 주장대로라면 산악·백희에 종사했던 연회자에 의해 혁신적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전통 연회 또는 전통 연회의 요소가 산악백희 연회자들에 의해 오늘날의 ‘본산대놀이 가면극, 판소리, 꼭두각시놀이’로 발전하였는지, 그 형성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판소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전경옥은 優戲影響說을 주장하고 있다. 優戲는 일종의滑稽戲인데, 판소리에 이런 골격적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聞喜宴에서 우희의 일종인 유희가 필수적인 연회로 연행되었고, 판소리도 문희연의 중요한 연회 종목이었으므로, 판소리에 대한 우희의 영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라도 김제 출신의 巫夫 才人으로 인조 4년(1626)에 거행된 나례에 동원되었던 朴男은 우희 연회자이자 판소리 창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박남이 판소리까지 불렀는지는 좀더 고증이 필요하지만, 具樹勳의 <二旬錄>에는 박남을 판소리 명창으로 소개하고 있기에, 박남을 초기의 판소리 창자로 본다면 초기 판소리 창자 가운데는 우희를 연행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본다면 우희는 판소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소리 광대가 우희도 연행했다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무엇을 주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우리는 ‘~기원설’, ‘~영향설’ 등을 주장하게 된다. 거시적 맥락에서 한국 연회의 기원을 산악백희기원설에 두고, 그 맥락에서 판소리의 우희영향설을 주장한다면 적어도 판소리의 형성에 다른 것들보다 우희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자생적 전통 연회들이 산악백희 연회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해 나간’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난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셈이다.

105) 전경옥 지음, 한국의 전통연회, 학고재, 2004.

민속극의 극중 인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과의 영향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sup>106)</sup> 이 역시 민속극의 기원과 형성이란 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정형호<sup>107)</sup>는 중부지방 탈놀이의 중 관련 마당에 등장하는 팔먹(8명의 墨僧)이八部衆에서 유래하였음을 논하였다. 원래 팔부중은 불법 보호신인데, 불교의 세속화와 기층 집단의 불교 수용양상에 따라 팔부중의 성격을 지닌 팔먹중의 비하 현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고승인 노장이 비하되면서 팔먹중도 세속화·비속화되었고, 이것이 현재 중부지방 탈놀이에 등장하는 팔먹이라는 주장이다. 부처에 대응되는 것이 고승이고, 팔부중에 대응되는 것이 팔먹중으로 볼 수 있기에, 여기에 불교의 세속화와 기층집단의 불교 수용양상에 따라 고승과 팔먹중이 세속화되었다는 주장을 연결시키면 중이 등장하는 과정은 원래부터 불교극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박진태 역시 팔부중은 불교에서 실천해야 할 8가지 聖道인 八正道에서 유래하였다고 함으로써<sup>108)</sup> 비슷한 견해를 보인 바 있다. 또한 전경옥도 한국의 놀이꾼의 계통을 세습무계 출신, 북방유목민 출신, 사원의 才僧출신으로 분류한 뒤 팔먹을 티베트불교인 라마교의 ‘참’과 관련지은 바 있다.<sup>109)</sup> 또 팔먹을 티베트 라마교의 유파인 몽골문화와 관련지으면서, 팔먹이나 오브제에 버드나무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점, 4인의 상좌와 흰 탈을 쓴 동자풍의 4인이 등장한다는 점, 8인의 먹중과 8대보살이 상호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든 바도 있다.<sup>110)</sup> 이런 이전의 연구들을 참조하면 정형호의 주장이 독단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아니나, 이런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으려면 팔먹중과 팔부중의 연결 관계가 보다 치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극중인물의 유래를 밝혔다고 하여, 연희자가 불교와 관련된 자라 하

106) 박진태, 「이철괴를 통해 본 산대놀이의 역사」, 『우리말글』 29호, 우리말글학회, 2003.12. 이 논문에서 박진태는 중국의 『列仙全傳』의 실려 있는 신선설화 중 이철괴에 관한 설화를 토대로 하여, 이철괴가 借尸還魂을 계기로 신선이 될 당시의 외모를 탈로 조형화한 것이 산대놀이의 눈금짜이와 연있이고, 이철괴의 춤사위는 산대놀이의 거드름춤으로 잔존해 있을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107) 정형호, 「탈놀이의八部중과 불교의八部衆神將의 관련성 고찰」,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12.

108) 박진태, 「한국가면극연구」, 새문사, 1985.

109) 전경옥, 「재승 계통의 연희자」, 『민속학연구』 11호, 국립민속박물관, 2002.

110) 전경옥, 「본산대놀이와 북방문화」, 『민속학연구』 8호, 국립민속박물관, 2001.

여, 중국의 불교극과 유사한 점들이 발견된다고 하여 이를 민속극의 기원과 형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 민속극의 독자적 요소나 독창적으로 변모한 점 등을 밝히면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민속극과 관련하여 박사학위 논문이 두 편 나왔는데, 한 편은 비교 연구이고, 다른 한 편은 전통극의 희극성을 연구한 것이다. 비교연구는 설화를 대상으로 주로 행해졌던 방법론인데, 민속극에까지 비교연구의 방법론이 적용되어 학위논문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sup>111)</sup> 이은희는 형성과 전승상황, 극적 기법, 주제와 미학의 세 가지 관점에서 한국의 가면극을 일본의 노(能)와 비교하였다.<sup>112)</sup> 형성과정의 비교에서는, 한국 가면극은 종교적인 요소가 점차 퇴색하고 민중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민속 가면극으로 발전하여 전승되어 온 반면, 노는 제아미에 의해 귀족들의 취향에 맞는 고고한 내용을 담아낸 무대극으로 발전하여 전승되어 왔다고 했다. 극적기법의 비교에서는, 한국 가면극은 노래보다는 춤이 많이 나오고, 춤의 동작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가면 쓴 연희자가 청중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민중의 현실의지를 반영한 사실적인 연극이자 공동창작인 데 비해 일본의 노는 대본의 이야기가 다양하고, 춤의 동작이 여러 종류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연희자가 가면을 쓰고 혼자서 춤을 추는 독무의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히 배우중심의 극단이 형성되어 배우들의 연기나 창법, 춤의 테크닉이 다양하게 발달된 극이라고 했다. 주제내용의 비교에서는, 한국 가면극은 양반풍자, 승려조롱, 종교적 의식무, 서민생활상 등이 반영된 집단무이지만 일본의 노는 신화, 역사물, 귀족과 왕족의 사랑이야기 등이 반영된 독무형태로 전승되어 왔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 가면극의 주제는 청중에게 이미 드러나 있는 데 반해, 일본의 노는 꽃이라는 상징적인 주제를 놓고 청중이 보고 느낀다고도 했다. 또한 한국 가면극과 일본의 노는 가무악

111) 한국의 민속극을 다른 나라의 것과 비교 연구한 석·박사 논문은 다음의 세 편이 확인된다. 명인서, 「한국 가면극과 동양 연극의 비교 연구」, 이화여대 박사, 1978.; 민희정, 「한일 가면극의 비교 연구」, 중앙대 석사, 1996.; 윤일수, 「中國劇의 한국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 2001.

112) 이은희, 「한국과 일본의 가면극 비교 연구—한국의 가면극과 일본의 노(能)를 중심으로—」, 아주대 박사, 2003.2.

희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킨 총체적인 연극인바, 이를 통해 한국의 가면극은 신명풀이라는 미의식을, 일본의 노는 幽玄의 美를 미의식을 나타냈는데, 이는 한국의 가면극이 무속적 인식론을 구체화했고, 일본의 노가 불교적 인식론을 구체화한 결과라고 했다. 한국의 민속극과 일본의 노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단순 비교에 그쳤기에, 비교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독창적 결론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정일권은 전통극의 극 정신은 바로 祝祭와 解冤에서 유래한 희극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기본 입장에 근거하여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의 시·공간에 나타난 희극성을 살폈다.<sup>113)</sup> 가면극에서는 가면과 연희 시·공간본질적으로 축제적 희극정신이 살아 있는 놀이판이라는 것에 희극정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제와 형식에 나타나는 희극성은 세 가지 주제, 즉 원형적 희극정신(근원적인 자연과 합일하는 모습), 허위와 실상에 대한 세태 풍자, 통합과 해원의 놀이판 등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인형극에서는 인형 자체, 연희 시공간에 희극정신이 발현되어 있고, 주제와 형식에 있어서 인간 내재적 모순에 대한 풍자, 사회병폐에 대한 세태풍자, 전통가정의 해체와 그 초월. 당시의 사회적 부조리와 인간 내재적 부조화를 풍자 회화하여 교정하는 원형적인 희극정신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판소리에서는 현장공연예술로서 즉흥성과 가변성이 연희의 특징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장면 극대화과 극적 집중화가 이루어져 부분장도 가능하게 되었고, 청중과 함께 연희를 완성해 가는 희극 양식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제의 희극성은 사회적 갈등과 병폐에 대한 사회풍자, 허욕과 위선의 폭로로 나타나고 있다 하였다. 논문의 서두에서 제시한 희극정신의 기준, 즉 축제적 희극성, 풍자적 희극성, 초월적 희극성, 교정적 희극성, 해피엔드의 결말이 한국 전통극에 그대로 적용되며, 극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의 논의는 이런 개념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희극을 '사회의 병폐나 인간의 근원적인 모순성을 풍자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통해 마주하는 관객의 지성에 호소하여 그 본질을 교정하고자 하는 연극의 한 형태'라고 규정한다면,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의 희극성은 어렵지

113) 정일권, 「한국 전통극의 희극성 연구」, 조선대 박사, 2003.

않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면극, 인형극에 비해 판소리는 양반 좌상객들도 청중으로 하여 전승되어 온 것이므로, 가면극, 인형극과는 다른 독자적 희극성을 가졌다고 봐야 한다. 가면극과 인형극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면극보다 인형극에서 보다 비판정신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희극성 또한 동일한 것일 수 없다. 세 갈래가 갖는 희극성의 세밀한 차이를 무시한 채, 희극이라는 개념에 얽매어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희극성 검토에 그치고 말았다.

### 3.6. 속담·수수께끼

속담이나 수수께끼는 거의 학문적 생점이 없는 분야이다. 그리고 연구 논문도 많지 않다. 수수께끼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된 논문<sup>114)</sup>이 한 편 있으나, 엄밀하게 보면 수수께끼에 대한 논문은 아니다. 수수께끼가 중심인 이야기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논의를 통해 수수께끼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충분히 드러내주었다고 평가된다.

김경섭은 수수께끼담이 지니고 있는 서사 시학적 특징과, 그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구조로 수수께끼담의 의미를 추적하며, 문화 내의 한 소통방식으로서 수수께끼담의 소통양식을 검토하였다. 즉 수수께끼담은 전체적으로 이야기 연행으로서의 보편성을 지님과 동시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자로 하여금 다른 이야기의 연행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 전달 방식을 경험하게 하는 특수성이 있는 바, 이러한 수수께끼담에 나타나는 수수께끼의 양상에 따라 이야기를 일방형 수수께끼담, 전도형 수수께끼담, 쌍방형 수수께끼담으로 나누어 그 연행 수행방식과 특징,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수수께끼담의 문화적 의미를 논의한 부분이다. 수수께끼담에는 그 해결자로서 아이, 여자, 노인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아이:어른, 여자:남자, 노인:젊은이의 양향대립에서 약자가 난제 해결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을

114) 김경섭, 「수수께끼담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 박사, 2003.6.

말해주며, 약자에 대한 재인식을 문화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수수께끼담은 기호학적 가치전이를 적극 실현시키는 텍스트라고 하였던 바, 수수께끼가 문학적·문화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수께끼담은 메시지 지향의 문화유형에 비해 약호지향의 문화유형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메시지 지향의 문화유형은 정보성이 낮은 메시지를 원활하게 전달하며, 전달과정에서 텍스트 내부의 의미론적 요소가 매우 강조되는데, 약호지향의 문화유형은 정보성이 높은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장애를 형성하여 전달하며, 전달과정에서 텍스트 외적인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는 반성성이 강한 텍스트라는 점에서 수수께끼를 활용한 이야기의 문화적 효용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 3.7. 구비서사시

서사민요에 대한 연구, 서사민요 비교연구, 구비서사시의 이론 구축, 구비서사시의 작시원리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서영숙은 서사민요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sup>115)</sup> 주로 전남 지방에 국한하여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 서사민요를 분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즉 작품 속 주인공과 상대인물의 관계로 상위 유형을 분류한 뒤, 이들 주인공과 상대인물이 일으키는 중심적인 사건으로 다시 분류하고 있는바, 서사민요를 연구하기 위한 분류방안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제출했다고 본다. 서사민요가 거의 시집살이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집살이하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집식구들과의 관계는 서사민요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사민요야말로 서사민요 가창자의 생애담과 서사민요의 가창 또는 생산을 연결시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한경민은 한국의 서사민요와 헝가리의 서사민요를 비교한 뒤, 여성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생활감정을 노래하

115) 서영숙, 「『중가—저너』형 서사민요의 유형구조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34집, 한국문학회, 2003.8.; 서영숙, 「전남 서사민요의 유형분류와 존재양상」, 『한국민요학』, 제13집, 한국민요학회, 2003.12.; 서영숙, 「전남 서사민요의 연행방식 연구」, 『어문연구』, 제43집, 어문연구학회, 2003.12.

고 있는 서사민요는 가부장제 사회의 부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문학형식이라고 하였다<sup>116)</sup>. 두 나라가 전승하는 서사민요의 사회적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은 비교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그 세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서사민요가 차지하는 위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원오는 몽골의 <장가르>를 대상으로 제전서사시에서 놀이서사시로의 변천과정을 살폈다.<sup>117)</sup>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변천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 연구인데, 연행환경이 제전의 현장에서 이를 벗어난 일반 연행 현장으로 바뀌면, 그에 따라 구비서사시의 텍스트 내용에 애정서사의 확대와 같은 문학적 흥미소들이 첨가된다고 한 것이, 그가 기존의 논문에서 주장한 견해이다. <장가르>를 통해서 이러한 기존의 입장에, 영웅적 인물을 추가하면서 영웅서사를 확대하는 것 또한 문학적 흥미소의 첨가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장가르>는 제전의 현장에서 구연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서 변천과정으로 보면 과도기에 놓여 있는 구비서사시이다. 영웅의 개인사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애정서사를 확대하기보다는 여러 영웅을 중심으로 한 영웅서사를 확대함으로써, 한 명의 영웅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영웅관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일반적인 영웅서사시의 서사문법과는 다르다. 이는 <장가르>에서의 영웅서사 확대가, 민족영웅 한 명을 중심으로 한 영웅서사시보다 후대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연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작품 분석에 대한 연구는 후속과제로 남는다.

김상현은 구비서사시의 작시원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sup>118)</sup> A. B. Lord의 Formula이론과 이 이론을 적용한 많은 국내의 연구성과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유고슬라비아 구비서사시 작시원리의 가능성을 내포한 또 하나의 요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공식적 표현의 경우에 있어서, 유고슬라비아 구비서사시의 시행들과 함께 살펴본 한국 무

116) 한정민, 「한국과 헝가리의 민요 비교—〈시집살이 노래〉와 〈죽도록 춤추게 된 소녀〉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13집, 한국민요학회, 2003.12.

117) 최원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1)—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6.

118) 김상현, 「세르비아 구비서사시와 한국민요의 작시단위 분석」, 『동유럽발칸학』 4권 2호, 한국동유럽발칸학회, 2002.12.; 김상현, 「한국무가의 작시원리를 통해서 본 유고슬라비아 구비서사시의 공식적 표현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6.

가의 예문들에서 공통성을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의 구비서사시의 경우에서만 나타나는 것들도 있는데, 이는 유고슬라비아 공식구를 구성하는 요소에 음절수와 율격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를 기존의 작시원리와 관련하여 Formula, formulaic expression, theme가 의미적·형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면, 음절의 숫자와 율격은 형식적·의미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보았다. 음절의 숫자나 율격이라고 해서 구비시가 작품의 의미의 세계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으며, 이는 Formula, formulaic expression, theme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든 두 가지 요소, 즉 음절의 숫자나 율격은 유고슬라비아 구비서사시의 작시원리에만 나타나는 것인바, 구비서사시 작시원리의 일반이론에서 각 민족의 구비서사시가 갖는 특수성이 조명되었다고 하겠다. 구비서사시의 작시원리에 대한 일반이론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그 특수성에 대한 해명은 별로 없었기에 비교연구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 4. 맺음말—전반적 경향과 학문적 전망을 겸하여

2003년도 구비문학 연구경향을 각 갈래별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화나 구비서사시를 대상으로 한 국제간 비교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러시아나 동유럽의 구비문학과 비교하는 것도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음을 본다. 민요나 민속극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도 있었지만, 아직은 활발하지 않다. 특히 민속극 연구자들은 한국의 민속극 기원과 형성을 논함에 있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이입요소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그 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구비문학 비교연구는 ①수용관계를 해명하는 연구, ②공통점과 차이점을 해명하는 연구, ③구비문학의 존재양상을 비교하는 연구, ④문학사에서 구비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을 비교하는 연구 등이 있을 수 있다. 연구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방식이 되었건 간에 비교연구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문학 상황을 점검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①, ②의 관점을 취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③, ④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국의 문학 상황과 관련하여 ‘무엇을 해명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는 단순 비교에 그치고 말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 연구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장연구는 한때 활기차게 이뤄지다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당신화를 대상으로 신화와 제의의 관계, 민요 가창자의 생애담과 민요생산의 관련성, 무가현장의 보고, 현지조사를 통한 판소리 광대 연구, 지방에서의 민속극 존재 양상 등을 고찰하려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구비문학 연구에 있어 현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조사라는 것도 하나의 연구 방법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장조사가 연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몇몇 연구는 현장조사와 보고에 그치고 말았는데, 현장 연구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인식과 각성을 분명히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장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생애담을 조명하고 그것을 구비문학의 생산과 관련시키는 연구는, 창자연구이면서 작품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또한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는 현장 연구, 현대 사회에서 전통 구비문학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조명하는 연구도,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때 경기도 양주지역의 현장 조사연구가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개인연구로서는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한국구비문학회에서 떠맡아, 매년 한 지역을 대상으로 각 갈래를 전공한 연구자들이 모여 집중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셋째, 근·현대사회에서의 구비문학의 존재양상을 점검하는 연구가 촉발되고 있다. 근대의 경우, 주로 판소리 분야에서 성과가 제출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 조사를 병행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일제시대의 구비문학연구는 집중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현대의 경우, 구비문학의 개념 및 범위의 확장과 관련하여 구비문학의 범주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를 점검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비문학은 매체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겪고 있고, 그에 따라 구비문학의 범주에서 연구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라 하여 구비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정작 구비문학 연구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문화콘텐츠를 기술적인 문체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비문학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방안을 구비문학 연구자들이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것을 구비문학 연구자들이 감당하려 하지 않고, 시나리오 창작자나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연구발표를 의뢰한다든지 해서는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다. 구비문학 연구자들이 주체가 되고, 이들을 부차적인 연구자로 한 연구가 진행될 때 구비문학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넷째, 무가, 판소리나 민속극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연희에 대한 관심이다. 문학적 분석보다는 문학 텍스트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요소—하긴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변은 달라질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런 틀 안에서 문학 텍스트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민속학 연구자들이 문학 텍스트의 생산과 관련된 주변적 요소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들 분야에서도 그런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때 문학적 분석에 치중하였던 구비문학계 중진학자들이 이러한 민속학적 연구경향을 선도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음악이나 연극, 무용을 전공한 학자들이 구비문학 관련 분야를 연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문학적 분석에 치중하였던 구비문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비문학 연구는 '전통 구비문학에 속한 작품들의 분석'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관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연구시각을 조정함으로써 이를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 구비문학 연구는 고전문학의 연구방법론을 따르는 한편, 국제적 비교연구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현대 구비문학연구는 현대문학·현대문화의 연구방법론을 따라 연구하면 된다. 구비문학연구자는 고전문학 연구자이면서 현대문학연구자·현대문

화연구자일 수 있고, 또한 비교문학·비교문화연구자일 수 있다. 구비문학 연구자의 시각을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sup>119)</sup>

## &lt;저서&gt;

- 강은해, 『한국난타의 원형, 두두리 도깨비의 세계—도깨비 설화의 시학—』, 예림 기획, 2003.
- 국제문화재단 편, 『한국의 판소리문화』, 박이정, 2003.
- 김동건, 『토끼전 연구』, 민속원, 2003.
- 김승찬 외 공저, 『한국구비문학론』, 새문사, 2003.
- 김열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아카넷, 2003.
- 김현주, 『구술성과 한국서사전통』, 월인, 2003.
- 김화경, 『세계 신화 속의 여성들』, 도원미디어, 2003.
- 동아시아고대학회 편,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2003.
- 박관수, 『어러리의 이해』, 민속원, 2004.1.
- 반재식, 『한국웃음사』, 백중당, 2004.
-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신화와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손태도, 『광대집단의 문화 연구 1—광대의 가창 문화』, 집문당, 2003.
- 이기형, 『필사본 화용도 연구』, 2003.
-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2.
- 이종욱, 『한국사의 1막 1장 건국신화』, 휴머니스트, 2004.4.
- 임명진 외, 『판소리의 공연예술적 특성』, 민속원, 2004.
- 조현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 전경욱, 『한국의 전통연희』, 학교재, 2004.4.
- 정병권 외, 『한국·동유럽 구비문학 비교연구』, 월인, 2003.
- 정하영,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2003.
- 정충권, 『홍부가연구』, 월인, 2003.
- 진성기, 『제주도무속논고—남국의 무속』, 민속원, 2003.
- 최인학 외,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민속과 동아시아』, 민속원, 2004.5.
- 허용호, 『전통연행예술과 인형오브제』, 민속원, 2003.
-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희극정신과 극적 아이러니』, 박이정, 2003.

## &lt;자료집&gt;

---

119) 많지는 않지만 구비문학과 관련된 몇몇 연구들도 함께 제시한다.

- 김시업, 『정신의 아라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두창구, 『심척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3.
- 두창구, 『양양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4.5.
- 양종승, 『강령탈춤자료집』, 민속원, 2004.
- 양민중, 『알타이이야기』, 정신세계사, 2003.
- 조선총독부 편, 권혁래 역, 『조선동화집—우리나라 최초 전래동화집(1924년)의 번역·연구—』, 집문당, 2003.
- 조희웅 외, 『영남구전자료집』 1—8, 박이정, 2003.
- 정병권 외, 『동유럽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월인, 2003.
- 정병권 외, 『동유럽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노래했을까』, 월인, 2003.
- 정양·최동현·임명진 편저, 『판소리 단가』, 민속원, 2003.
- 최형근, 『서울의 무가』, 민속원, 2004.1.
- 하효길, 『풍어제무가』, 민속원, 2004.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 민속원, 2004.

<학회지 게재 논문>

<설화(야담 포함)>

- 강성숙, 「15세기 문헌 소화 연구—대평한화골계전·용재총화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강영순, 「야담의 우연적 소통 고찰」, 『한민족어문학』 제43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12.
- 강은혜, 「한·중·일 설화의 나무모티프 형성과 변화」, 『중한인문과학연구』 10,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3.
- 강진옥, 「양주지역 설화의 전승양상을 통해본 이야기문화의 현황과 향방」,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12.
- 강재철, 「동양의 설화채록제도와 정치적 목적」,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2.
- 강현모, 「백제 건국신화의 전승 양상과 의미」, 『비교민속학』 24, 비교민속학회, 2003.2.
- 김기호, 「아동의 서사구술 능력 발달 단계—주인공의 갈등해결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80호, 한국어문학회, 2003.6.
- 김기호, 「트릭스터 그리고 성장의 매개자: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 『한민족어문학』 제4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3.6.
- 김기호, 「호랑이 설화에서 트릭스터 호랑이의 발달」, 『국어국문학』 135, 국어

- 국문학회, 2003.12.
- 김근태, 「한·중·일(韓中日) 아래자형 설화의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2.
- 김상헌, 「유고슬라비아 口碑文學을 통한 유고슬라비아 人의 宇宙觀 考察」, 『역사민속학』 제1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6.
- 김상헌, 「유고슬라비아·중앙아시아·한국 구비문학작품의 ‘老人殺害’ 모티프 분석— A—T981번 유형설화의 재해석의 가능성—」, 『동유럽연구』 제12권 1호,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소, 2003.8.
- 김수중, 「설화 연구의 대중화 가능성」, 『한국언어문학』 제5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12.
- 김승호, 「서찰문헌 설화에 나타난 소설 담론성 연구」, 『어문연구』 제43집, 어문연구학회, 2003.12.
- 김영수, 「우적가 배경설화에 나타난 시험과 오도의 양상」, 『비교민속학』 제25집, 비교민속학회, 2003.8.
- 김영동, 「한국설화의 性意識攷」, 『어문연구』 40, 어문연구학회, 2003.
- 김영희, 「구전이야기 현지조사연구의 문제와 시각」,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12.
- 김종근, 「현대 드라마의 구비문학적 위상」,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김태식, 「사극집 설화의 역사적 이해」, 『민속학연구』 제12호, 국립민속박물관, 2003.6.
- 김현선, 「제주도와 琉球의 巫祖神話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곽정식, 「망우당설화에서 본 사실과 허구의 관련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35집, 한국문학회, 2003.12.
- 노영근, 「〈방귀쟁이 며느리〉 민담의 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노재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나타난 변형된 모성, 나르시시즘적 욕망—정신분석학적 접근—」, 『어문논집』 47, 민족어문학회, 2003.4.
- 민 찬, 「서동설화 형성의 설화적 논리」,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5.
- 박상란, 「한국 불교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6.
- 박종성, 「구비전승의 〈三台星〉과 〈北斗七星〉 神話 一考—무속신화와 건국신화의 상관성 및 신앙의 양상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

- 문학회, 2003.6.
- 박종성, 「헝가리의 창세 및 민족기원 신화의 재편 상상」, 『동유럽연구』 제12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동유럽발칸연구소, 2003.8.
- 박종익, 「구비설화에 나타난 도깨비의 정체성 고찰」, 『어문연구』 제42집, 어문연구학회, 2003.8.
- 박진태, 「춘향이 발생설화를 통해 본 춘향가의 수용양상」, 『비교민속학』 24, 비교민속학회, 2003.2.
- 방동수, 「고소설에 수용된 부마되기 모티프의 양상과 의미」, 『문학과 언어』 제25집, 문학과언어학회, 2003.5.
- 손정인, 「<도미전>의 인물형상과 서술방법」, 『어문학』 제80호, 한국어문학회, 2003.6.
- 손정희·정무룡, 「三國時代 烈女型 說話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제17집, 동양한문학회(부산한문학회), 2003.4.
- 송정화, 「중국 여신의 특징에 대한 소고」, 『동아시아고대학』 제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3.6.
- 서대석, 「한국과 滿族의 구비서사문학의 대비 연구」,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문화』(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한국학공동연구총서 1),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서해숙, 「최치원 설화의 신화적 성격」,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5.
- 설중환, 「建國神話의 循環構造에 대한 易學的 考察」, 『어문논총』 38, 한국문학언어학회, 2003.
- 신연우, 「許穆 <退潮碑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12.
- 신연우,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6.
- 신동훈, 「이야기문화의 세대별 양상과 경험적 담화—경기도 양주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신태수, 「수중계모티프 소설의 양상과 사상적 기반」, 『어문학』 제82호, 한국어문학회, 2003.12.
- 이강욱, 「초기 야담집 학산한언의 서사지향 연구: 현실지향과 비현실지향」,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12.
- 이복규, 「북한 구전설화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제8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3.12.
- 이수자,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관광의식」, 『역사민속학』 제17호, 한국역사

- 민속학회, 2003.12.
- 이인경, 「구비설화를 통해 본 노후의 삶과 가족」,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12.
- 이인경, 「〈한국 설화 분류 방안〉의 쟁점과 전망」, 『국문학연구』 제10호, 국문학회, 2003.12.
- 이윤경,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이지영, 「〈오늬힘내기 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12.
- 이창식·최명환, 「『다자구할머니』 설화의 신화적 성격」, 『동아시아고대학』 제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3.6.
- 임재해, 「민속문학의 교육적 기능과 문예창조력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제25집, 비교민속학회, 2003.8.
- 조윤희, 「구전설화의 전사체계(轉寫體系) 연구」, 『한국어문교육』 제12집,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3.
- 조현설, 「신화적 구비서사의 현상과 전망—경기도 양주 지역 이야기문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조현설, 「조선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6.
- 조현설, 「동아시아 홍수신화 비교 연구—신·자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조현설,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에 관한 시론」, 『동아시아고대학』 제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3.6.
- 조현설, 「한국 창세신화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문제」, 『한국어문학연구』 제4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8.
-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12.
- 장장식, 「몽골의 어머니신앙과 여성신격」, 『동아시아고대학』 제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3.6.
- 전신재·최영희, 「한국 설화 속의 신뢰, 불신」, 『역사민속학』 제1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12.
- 정상진, 「〈螺中美婦〉설화의 전승양상과 비극성」, 『한국문학논총』, 제33집, 한국문학회, 2003.4.
- 정준식, 「18세기 야담집의 동일 구전이야기 수용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34집, 한국문학회, 2003.8.

- 천혜숙, 「현대의 이야기문화와 TV」,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최명환, 「현대의 지역축제와 전설—강원도 영월지역의 ‘단종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최운식, 「충남지역 인물 전설의 전승 양상과 활용 방안」,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12.
- 최원오,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轉變과 윤리의 문제」, 『비교민속학』 24, 비교민속학회, 2003.2.
- 최진봉, 「장세신화의 공간 연구」, 『송실어문』 19, 崇實語文學會, 2003.
- 최혜실, 「디지털 문화 환경과 서사의 새로운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한미옥, 「백제건국신화로서의 沸流說話」, 『우리말글』 27호, 우리말글학회, 2003.4.

<민요(근대가요 포함)>

- 강경선, 「향토민요의 고재화 가능성 연구」,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김도훈, 「민요 분류방법론 연구」,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김병찬, 「지신밧기소리의 전승 원리 연구」, 동아대 석사, 2003.12.
- 김상규, 「우리나라 민요를 이용한 경제교육방안」,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김승호, 「서사의 서정적 이행 양상—춘향요의 노래가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4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8.
- 김인숙, 「경상도 논농사 소리의 음악적 특징과 분포」,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 김유희, 소리꾼의 민요인식과 민요의 창조적 형상화 양상,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김학성, 시집살이 노래의 서술구조와 장르적 본질,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8.
- 김학성·심선옥·김문태, 근대민요 [정선아라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방안, 어문연구 제120권(겨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 김현선, 경기도 양주군 민요의 과거와 현재—노동요와 의식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김혜정, 청춘가의 수용과 의미,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 구희산·김장순, 「“창부타령” 시김새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권오경, 「영남권 <논매는 소리>의 전승양상과 사설구성의 특질」,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 권오경, 「민요 교섭양상과 문화적 의미—영·호남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13집, 한국민요학회, 2003.12.
- 권오경, 「영남권 민요의 전승과 특질 연구—전이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29호, 우리말글학회, 2003.12.
- 권오경, 「구비문학교육을 위한 수업모형 탐색」, 『어문학』 제83호, 한국어문학회, 2004.3.
- 나승만, 「전남 내륙지역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 분석과 전통 민요의 전승맥락—전남 화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27호, 우리말글학회, 2003.4.
- 나승만, 「일제하 소안도 민족해방운동가의 수용과 전승」,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2.
- 박성수, 「부산지역 민요의 유형과 성격」,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 박소현, 「韓·蒙 민요 비교 연구의 필요성」,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 박애경, 「랩의 수용 과정을 통해 본 대중가요의 이식성과 자생성」,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6.
- 박애경, 「조선후기 시조와 잡가의 교섭 양상과 그 연행적 기반」, 『한국어문학연구』 제4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8.
- 변성구, 「제주도 민요연구의 성과와 과제」,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순인애, 「경기도 토속민요 방아소리 연구—경기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13집, 한국민요학회, 2003.12.
- 배인교, 「충청도 토리를 찾기 위한 시론」,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 윤여송, 「강강술래의 가창방식과 의미」,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이소라·좌혜경, 「우도면 민요 자료조사 보고서」,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이소라, 「영산강유역의 논뿔소리 <아리시고나>攷」, 『한국민요학』 제13집, 한국민요학회, 2003.12.
- 이성훈, 「통영지역 해녀의 <노젓는노래> 고찰」,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젓는 노래> 조사」, 『한국민요학』 제11집, 한국민요학회

-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송실어문』 제19집, 송실어문학회, 2003.
- 이용식, 「수심가(愁心歌)와 서도민요 공연문화」, 『한국민요학』 제13집, 한국민요학회, 2003.12.
- 이윤선, 「낮배노래에 나타난 어민 생활사」,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이윤정, 「경기도 논농사소리의 음악적 특징과 지역별 분포」,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 이창식, 「영월아리랑의 발굴과 보존」,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 이창식, 「김영돈의 민요학 연구」, 『한국민요학』 제13집, 한국민요학회, 2003.12.
- 이창식, 「민요의 정치시학」,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2.
- 이희주, 「서사무가의 편입가요 수용양상연구」, 『한국민요학』 제13집, 한국민요학회, 2003.12.
- 이해식, 「경상도쫓(調) 민요의 통시성과 토속성」,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이해식, 「민요채집을 위한 器機 사용론」,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 연혜신, 「충북지역 노동요에 나타난 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4집, 한국문학회, 2003.8.
- 조순현, 「연변지역 <청주아리랑>의 음악적 연구—청주지역 아리랑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13집, 한국민요학회, 2003.12.
- 장유정, 「1930년대 신민요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수용」,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 장유정, 「한국 트로트의 정체성에 대한 일고찰—1945년 이전 노래의 시적 자아의 정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6.
- 장유정, 「갈래를 통해 본 20세기 초 한국 가요의 전개 양상」, 『국문학연구』 제10호, 국문학회, 2003.12.
- 전지영, 「전라남도 민요의 분포와 특징」,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 좌혜경, 「제주민요 가창자론」,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최은숙, 「『신한민보』 수록 민요형 사설의 특성과 기능」,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 최윤자, 「여음의 수단을 통한 민요·전래동요의 이해」,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한정민, 「한국과 헝가리의 민요 비교—〈시집살이 노래〉와 〈죽도록 춤추게 된 소녀〉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13집, 한국민요학회, 2003.12.
- 한정미, 「북한의 민요수용 시각과 통속민요의 문제」, 『한국민요학』 제12집, 한국민요학회, 2003.6.

<무가>

- 강관용, 「제주도 특수본풀이에 대한 연구」, 『민속학연구』 제12호, 국립민속박물관, 2003.6.
- 강정원, 「근대화에 따른 유양리 민속문화의 변화—종교민속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김영숙, 「케네깃당본풀이에 나타난 가족간의 갈등과 신화적 성격」, 『우리말글』 27호, 우리말글학회, 2003.4.
- 김현선, 「巫俗과 政治」,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2.
- 김월덕, 「전북지역 마을굿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12.
- 안상경, 「충청도 '사혼굿'의 제의 환경과 극적 효과」,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이경엽, 「서남해지역 민속문화의 특성과 활용 방향」,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6.
- 이경엽, 「남해안 용왕굿의 현장론적 연구」,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12.
- 이용범, 「한국무속에 나타난 신의 유형과 성격」, 『민속학연구』 제13호, 국립민속박물관, 2003.12.
- 이정재, 「단종 복위와 무녀 충신 연구」,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12.
- 이현수, 「전남지방 당산제의 변모양상 연구」,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12.
- 임재해, 「굿문화의 정치 기능과 무당의 정치적 위상」,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2.
- 양종승, 「무속과 정치」,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2.
- 최원오, 「경기도 양주지역 무속과 무가의 현재적 진승 양상—양주읍·백석읍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 홍태한, 「서울굿 호구거리의 의미 연구」,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6.
- 홍태한, 「서울 진오기굿의 공연예술성」, 『공연문화연구』 제8집, 한국공연문화

학회, 2004.2.

황루시, 「황해도와 평안도 낚국의 공연예술성」, 『공연문화연구』 제8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4.2.

<판소리>

강윤정, 「박동진 본 <흥부가> 사설의 특징—신재효 본 <박홍보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15집, 판소리학회, 2003.4.

강윤정, 「박동진 본 <수궁가> 아니리의 구연방식」,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김석배, 「김창환제 <홍보가>에 끼친 신재효의 영향」, 『판소리연구』 제15집, 판소리학회, 2003.4.

김익두, 「동리 신재효의 광대가에 대한 연극학적·공연학적 해석」,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12.

민병욱, 「村山知義 연출 <춘향전>의 공연사회학적 연구」, 『한국문화논총』 제33집, 한국문화학회, 2003.4.

배연형, 「이동백 춘향가 연구」, 『판소리연구』 제15집, 판소리학회, 2003.4.

송방송, 「일제하 판소리의 전승양상—근대 오명창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적 이미지와 그 사회적 함의」,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서종문, 「판소리 사체에 관하여」, 『판소리연구』 제15집, 판소리학회, 2003.4.

성기린, 「19세기 후반기의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판소리연구』 제15집, 판소리학회, 2003.4.

성기린, 「18세기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한국음악연구』 34집, 한국국악학회, 2003.8.

신은주, 「김창룡 명창론」, 『판소리연구』 제15집, 판소리학회, 2003.4.

이진원, 「월극(越劇) 춘향전(春香傳)과 창극(唱劇) 홍루몽(紅樓夢)—중국 희극과 한국 창극의 교류에 관한 소고—」,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이훈상, 「조선후기 사회 규범들간의 갈등과 향리사회의 문화적 대응—판소리 흥보전과 중재 문화의 발전—」,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장성운, 「판소리 율격의 구현양상—<심청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장용석, 「아니리의 기능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진신재, 「〈춘향가〉와 죽음의 미학」,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12.

정병현, 「판소리사의 전개와 신재효의 <광대가〉」, 『공연문화연구』 제7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3.8.

정병현, 「명창 박동실의 생애와 판소리의 성격」, 『지역학논집』 제7집,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연구소, 2003.12.

정중권, 「1910년대 극장 무대 위의 여성 예술인들」, 『고전문학과 교육』 제6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

정중권, 「1900~1910년대 극장무대 전통공연물의 공연양상 연구」,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진은진, 「〈심청전〉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효녀실기심청〉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15집, 판소리학회, 2003.4.

최경원, 「〈열녀춘향수절가〉연구—언어사용역과 인물영역—」, 『어문학』 제82호, 한국어문학회, 2003.12.

최남경, 「송만갑의 악조구성에 나타난 서편제의 수용양상—토끼가 세상 나오는 대목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최동현, 「장재백과 그 일가의 판소리 인맥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10.

최원오, 「조선 후기 판소리문학에 나타난 하층 여성의 삶과 그 이념화의 수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6.

최혜진, 「이화중선(李花中仙)의 생애와 예술성」, 『판소리연구』 제15집, 판소리학회, 2003.4.

허원기, 「판소리 미학의 사상적 세 층위」, 『판소리연구』 제15집, 판소리학회, 2003.4.

홍순일, 「〈춘향가〉의 후대적 변이와 의미」, 『어문연구』 제43집, 어문연구학회, 2003.12.

#### <민속극(연희 포함)>

강원희, 「예천 청단놀이(조사보고서)」, 『공연문화연구』 제8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4.2.

김서덕, 「숫대타기 연희의 기원과 전개 양상」,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12.

박건웅, 「『꼭두각시놀음』과 손인형극의 비교 연구」, 『어문학』 제82호, 한국어문학회, 2003.12.

- 박진태, 「한국 민속극에 나타난 性」, 『인문과학연구』 25, 대구대학교 인문과학  
예술문화연구소, 2003.
- 박진태, 「민속학 교육으로서의 민속극 교육」, 『비교민속학』 제25집, 비교민속  
학회, 2003.8.
- 박진태, 「영남지역 탈놀이의 표현매체와 지역성」, 『우리말글』 28호, 우리말글  
학회, 2003.8.
- 박진태, 「한국 고대제외의 종류와 연극의 형성」, 『공연문화연구』 제7집, 한국  
공연문화학회, 2003.8.
- 박진태, 「한국 탈놀이의 유래담 연구」, 『민속학연구』 제13호, 국립민속박물관,  
2003.12.
- 박진태, 「이철괴를 통해 본 산대놀이의 역사」, 『우리말글』 29호, 우리말글학  
회, 2003.12.
- 박진태, 「사또놀이에 나타난 정치의식」,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2.
- 박진태, 「초계 밤마리오광대의 유래·원형·위상」,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12.
- 박진태, 「김해 가락오광대의 지역문화적 특성—유래담·대본·탈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4.2.
- 손태도, 「전통 사회 지방의 산대희, 나례희와 그에 따른 현장」, 『역사민속학』  
제16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6.
- 손태도, 「민속 연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  
학회, 2003.6.
- 심상교, 「동래야류 전승과정 연구(1)」, 『어문논집』 47, 민족어문학회, 2003.4.
- 안상복, 「고구려의 傀儻子(廣大)와 장천1호분 앞방 왼쪽 벽 벽화」, 『한국민속  
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6.
- 안태현, 「농환의 역사적 전개와 연희 양상」, 『민속학연구』 제13호, 국립민속박  
물관, 2003.12.
- 이병옥, 「탈춤에 나타난 북방춤과 남방춤의 계통적 비교」, 『공연문화연구』 제  
7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3.8.
- 이소라, 「봉산탈춤의 <놀랑> 연구」, 『공연문화연구』 제7집, 한국공연문화학  
회, 2003.8.
- 이영배, 「잡색놀음 연구 I」,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6.
- 윤광봉, 「연희와 정치」,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2.
- 진경옥,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의 지역적 소통」,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  
학회, 2003.6.

- 전경옥, 「양주별산대놀이의 지속과 변화」,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6.
- 전경옥, 「조선시대의 각종 행사와 각 지방의 연희문화」, 『민속학연구』 제13호, 국립민속박물관, 2003.12.
- 정상박, 「경남 가면극의 전승 양상」, 『공연문화연구』 제7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3.8.
- 정형호, 「가면극과 정치」,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2.
- 정형호, 「탈놀이의 八막중과 불교의 八部衆 神將의 관련성 고찰」,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12.
- 정희정, 「꼭두각시놀음의 후대적 변모 양상—서산박첨지놀이의 연희본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25호, 우리말글학회, 2002.8.
- 홍 희, 「중국 소수민족 탈(假面)의 종교적 의미와 기능」, 『동아시아고대학』 제8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3.12.
- 허용호, 「양주소놀이굿 전승에서 나타나는 변이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6.
- 허용호, 「조선시대 제의적 연행 인형 연구」,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6.
- 허용호, 「서산박첨지놀음의 전승 양상」, 『민속학연구』 제13호, 국립민속박물관, 2003.12.

#### <속담·수수께끼>

- 서현석, 「‘다공간 모형’을 활용한 속담 지도 방안」, 『한국어문교육』 12, 한국고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3.
- 이민주, 「속담에 표현된 복식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6.

#### <구비서사시>

- 김상현, 「한국 무가의 작시원리를 통해서 본 유고슬라비아 구비서사시의 공식적 표현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6.
- 서영숙, 「총각—처녀’형 서사민요의 유형구조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34집, 한국문학회, 2003.8.
- 서영숙, 「전남 서사민요의 유형분류와 존재양상」, 『한국민요학』 제13집, 한국민요학회, 2003.12.
- 서영숙, 「전남 서사민요의 연행방식 연구」, 『어문연구』 제43집, 어문연구학회, 2003.12.

차재형, 「<구지가>의 戰爭敍事詩의 성격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3집, 한국문학회, 2003.4.

최원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1)—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6.

<석사논문>

강태임, 「Topoi@로서의 속담」, 연세대, 2003.

김경숙, 「한국 건국 신화에 나타난 여성의식 고찰—그리스 신화와 비교를 중심으로—」, 진주교대, 2003.8.

김경희, 「중국 <梁·祝> 故事의 한국적 수용 양상」, 서울대, 2004.2.

김병찬, 「지신밟기소리의 전승 원리 연구」, 동아대, 2003.

김소희, 「민속곡의 통속성 연구—하회별신굿놀이·양주별산대놀이·꼭두각시놀음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2004.

김은정, 「아랑전설의 축제화 양상과 그 사회 문화적 의미」, 안동대(민속학), 2003.

김은천, 「『어린이』 지 게재 전래동화 연구」, 홍익대, 2003.

김인희, 「관용어와 속담에 나타난 은유 분석」, 경북대, 2003.

김지민, 「서사무가 <당금애기>의 원형 연구」, 경남대, 2003.

남필숙, 「여성주의 시각으로 본 장끼전」, 원광대, 2003.

동우비, 「한중 속담의 문화언어학적 비교 고찰」, 전남대, 2003.

민보영, 「김덕령에 대한 설화와 소설의 비교 연구」, 전남대, 2004.

박미화, 「기녀 트릭스터담의 구조와 의미」, 한양대, 2004.2.

박선애, 「서울지역 한 집성촌의 마을신앙의 전승양상과 지속성 확보」, 안동대(민속학), 2003.

백민정, 「<지성이와 감천이> 설화 연구」, 충남대, 2003.8.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성의 구현양상과 의미」, 경희대, 2003.2.

송승렬, 「창세신화의 신격 연구—동북아 제민족 창세신화와의 비교를 통한 고찰—」, 영남대, 2003.

심민호, 「지네 여인 변신 설화'의 지역성과 전승양상」, 충남대, 2003.2.

오수정, 「<연명설화> 연구」, 한국교원대, 2003.2.

엄수경, 「<콩쥐팍쥐> 설화의 전래동화 수용양상 연구」, 목포대, 2004.2.

이은희, 「설화에 나타난 고부관계 연구—문제상황주체로서의 며느리를 중심으로—」, 강원대, 2003.8.

이태화, 「신문관 간행 판소리계 소설의 개작 양상」, 고려대, 2003.6.

- 유수근, 「김세종제 판소리 비교연구—박석치 대목을 중심으로—」, 수원대, 2003.
- 조길상, 「연명설화연구」, 창원대, 2004.1.
- 조동홍, 「영웅담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양상 연구」, 부경대, 2003.8.
- 趙嫻嫻, 「한·중 ‘양축설화’ 비교 연구」, 충북대, 2003.
- 조성훈, 「아래지설화의 신화성과 용신양」, 대전대, 2003.
- 전성희, 「한국 도깨비담과 러시아 바바—야가담의 비교 연구」, 고려대 비교문학 협동과정학과, 2003.6.
- 정은경, 「조선시대 궁중 정재와 민간 연희의 교섭 양상」, 고려대 석사(민속학), 2003.6.
- 정효영, 「관용구과생 명칭으로서의 속담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2003.
- 최윤경, 「매기고 받는 형식 민요 연구」, 한국교원대, 2004.2.
- 편성철, 「삼척 해안지역 당신화 연구」, 경희대, 2004.2.

#### <박사논문>

- 강상희, 「한국행위예술과 샤머니즘의 미적 조형성 연구」, 원광대(미학), 2003.
- 강성숙, 「15세기 문헌 소화 연구」, 이화여대, 2003.
- 강윤정, 「박동진 판소리 창본 연구」, 충북대, 2004.2.
- 김난주, 「한국 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단국대, 2003.
- 김경섭, 「수수께끼담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 2003.
- 김성식, 「백두산설화 연구」, 조선대, 2004.2.
- 김일겸, 「카작 민족의 영웅상—설화와 서사시를 중심으로—」, 서울대(종교학), 2003.
- 김월덕, 「전북지역 마을굿의 공연학적 연구」, 전북대, 2003.2.
- 김후련, 「고대 일본인의 他界觀 연구(日文)」, 한국외대(일문학), 2003.
- 권도희, 「20세기 전반기의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음악학), 2003.
- 권복순, 「인물 전설의 서사 구성과 성격—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대, 2003.
- 손문숙, 「한국 머느리설화 연구」, 동아대, 2003.
- 상기련, 「1930년대 판소리 음악문화연구」, 서울대(음악학), 2003.
- 신정순,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설화교육 방법 연구」, 계명대(교육학), 2003.
- 이소라, 「삼국유사의 서술방식 연구」, 서울여대, 2003.6.
- 오세정, 「한국 신화의 제의적 서사 규약과 소통 원리 연구」, 서강대, 2003.
- 이은희, 「한국과 일본의 가면극 비교 연구—한국의 가면극과 일본의 노(能)를 중심으로—」, 아주대, 2003.2.
- 이유경, 「신화의 형성과 해석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 홍익대(미학), 2004.2.

- 육 혼, 「한·중·일 삼국 속담의 비교 연구」, 명지대, 2003.
- 정일권, 「한국 전통극의 희극성 연구」, 조선대, 2003.
- 하은하, 「귀신이야기의 형성과정과 문학치료적 의의」, 서울여대, 2003.
- 하정현, 「『삼국유사』 텍스트에 반영된 ‘神異’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종교학), 2003.
- 한미옥, 「백제 건국신화의 계통과 전승연구」, 전남대, 2003.